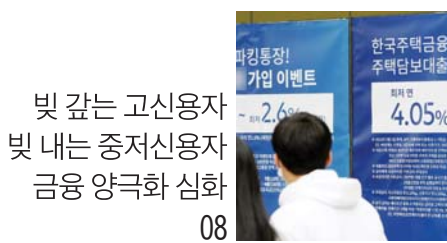


| 9일 Market Index |          |           |         |
|-----------------|----------|-----------|---------|
| 코스피             | 2510.06  | 코스닥       | 835.85  |
|                 | (-3.15)  |           | (-6.43) |
| 금리 (한국예 9년)     | 3.256    | 환율 (원·달러) | 1323.90 |
|                 | (-0.005) |           | (+2.50) |



빛 밝는 고신용자  
빛 내는 중저신용자  
금융 양극화 심화  
08

# 韓美日 외교 ‘견고’, 3高 위기 경제 ‘불안’, 정치 ‘불통’

## 용산시대 1년

### 尹 대통령 성과·과제

취임 11일 만에 한미정상회담  
한일 ‘셔틀외교’ 12년 만에 복원  
영업사원 자처, 대규모 투자유치  
野와 소통부재로 국정과제 제동  
경제 복합위기에 저성장 등 과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존경받는 나라를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5월 10일 청와대 시대를 뒤로하고 용산 시대를 연 윤석열 대통령은 헌정사상 최초의 ‘출·퇴근하는 대통령’을 비롯해 최초의 출근길 약속회견을 진행하는 등 파격적인 행보를 보였다.

윤 대통령의 취임 1년을 맞는 가운데 지난 1년 간의 윤석열 정부를 평가해보면, 외교와 안보 분야에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에 따라 성과를 거뒀지만, 경제와 정치 분야에서는 미흡했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 2년 차는 22대 국회의원 선거도 1년을 앞두고 있어 경제와 정치 분야에서의 성과도 필요하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0회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선수단 오찬에 앞서 선수 대표로부터 선수단 스카프를 받고 있다. /뉴시스

는 게 중론이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한미동맹의 재건 및 강화를 위해 취임 11일 만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을 진행하고, 지난해 한국 대통령 최초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등 숨 가쁜 외교 일정을 소화했다.

윤 대통령도 취임 1년을 앞둔 9일 용

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1년 전 이맘때를 생각하면 외교, 안보만큼 큰 변화가 이뤄진 분야도 없다”고 평가했다. <관련기사 2~4면>

특히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하며 사우디아라비아 빈 살만 왕세자 방한 계기 약 40조원에 달하는 26건의 양해각서 체결, 첫 국민 방문한 아랍에미리트 순방 당시 300억달러(약 39조

7440억원) 투자유치 등 이뤄냈다.

아울러 12년 만에 한일 정상 셔틀외교 복원을 통해 한미, 한일, 한미일 3국 외교를 견고히 하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고, 첨단산업·경제·인적 교류 등을 추진해 새로운 미래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여소야대의 21대 국회에서 야당과의 협치, 소통의 부재로 윤석열 정

부의 국정과제 추진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윤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인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을 비롯해 윤 대통령의 원활한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서는 야당의 동의 없이 성과를 거두기 힘들다.

더욱이 취임 이후 윤 대통령은 여당 지도부와 회동 및 만찬, 당정 협의를 통해 국정과제를 추진하고 있으나, 국정 운영 파트너인 야당 지도부와는 만남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당시 홍준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대표와의 회동이 339일 만에 이뤄진 바 있지만, 윤 대통령은 취임 1년까지 야당 대표와의 회동은 없어 매일 기록을 갱신 중이다.

경제 분야에서도 성과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윤석열 정부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3고(高)’를 비롯해 저성장까지 맞물리며 수출 감소세가 이어지는 등 복합위기 극복을 우선순위로 놓고 있다.

이에 윤 대통령은 민간주도 시장 중심과 미래세대를 위한 건전재정 전환, 규제 철폐 등 경제정책기조를 전환시키면서 비상경제민생회의, 국정과제점검회의 등을 직접 주재하며 민관이 함께 복합위기를 극복하자고 독려하고 있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metroseoul.co.kr

## 존엄하게 죽을 권리… ‘연명치료 거부’ 6년새 20배 늘어 174만건

지난 2009년, 소위 ‘김 할머니 사건’은 우리 사회에서 ‘죽을 권리’가 조명 받는 본격적인 계기가 됐다. 당시 김 할머니는 폐암 여부를 확진받기 위해 의료 기관에서 조직 검사를 받다가 과다출혈이 발생해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다. 김 할머니는 중환자실로 옮겨져 생명 유지 장치에 의해 생명을 이어갔다. 가족들은 김 할머니의 평소 뜻을 병원 측에 전하며 인공호흡기를 제거해 달라고 부탁했으나 병원 측은 이를 거부해 결국 법정까지 갔다. 이들의 소송은 대법원까지 가게 된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른 후엔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신체 침해 행위에 해당하는 연명 치료를 강요하는 것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해치게 된다’며 해당 환자에 대한 연명 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고 선고했다. <메트로경제>는 ‘죽을 권리’를 둘러싼 이슈를 3회에 걸쳐 짚어본다. <편집자 주>

### 어떻게 죽어야 할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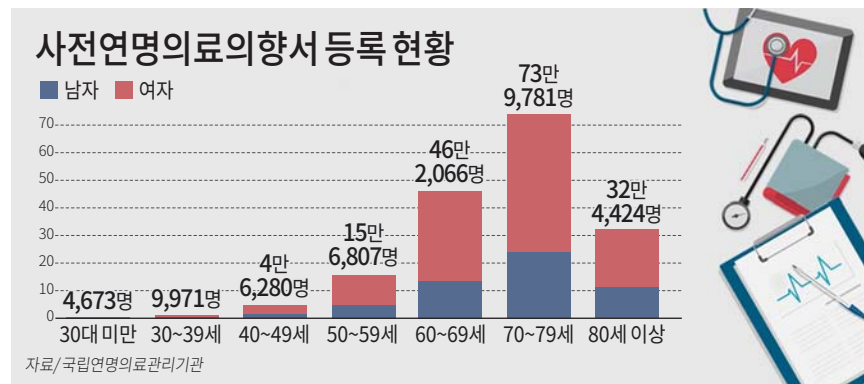
#### <上> 연명의료결정제

2009년 ‘김 할머니 사건’ 계기로 무의미 연명의료중단 공감대 형성

2018년부터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호스피스 병상 등 공격 투자 절실

당신은 죽음을 ‘준비’ 해 본 적 있는가.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총 사망자 37만2800명 중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숨지는 사망자 수가 74.8%에 이른다. 그 중 의학적으로 소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임종기’에도 인공호흡기 착용, 항암제 투여 등으로 생명 연장을 시도하는 환자가 대부분이다.

위의 ‘김 할머니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는 무의미한 연명 의료 중단



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고, 지난 2016년 국회에서 일명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 2018년부터 시행됐다.

19세 이상의 사람은 자신이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됐을 경우에 대비해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죽음이 가까운 환자를 입원시켜 위안과 안락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특수 병원)에

관한 사항’을 선택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로 작성할 수 있다.

또한, 말기 환자나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는 담당의사를 통해 연명의료 중단결정서를 작성할 수 있고, 환자는 자신의 의사에 의거해 연명의료를 중단하거나 유보할 수 있다.

◆도입 6년차, 빠르게 제도 정착…과제도 많아

도입 6년차를 맞은 ‘연명의료결정제’는 사회적 합의를 차곡차곡 이뤄내고 있다. 지난 2018년 3월 3일까지 8만 6691건이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건수는 2023년 4월 3일 현재 174만 4002건으로 약 20배 늘었다.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가 지난해 8월 여론조사 업체 ‘리서치뷰’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 따르면, 회생 가능성이 없더라도 생명 연장만을 위한 연명의료를 받겠냐는 질문에 81.7%가 받지 않겠다고 답했다. 연명의료를 받겠다는 응답은 7.0%에 그쳤다.

다만, ‘연명의료결정제’가 풀어야 할 과제도 많다.

<2면에 계속>

/박태홍 기자 pth7285@

##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합동참모본부, 미국 제임스 육군 참모 총장 접견해 확장 억제 논의 /사진 뉴시스  
▲ 박지원,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에 “보고 싶은 곳 검증” 당부

▲ 행안부, 지방 소멸 위기에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처리 촉구  
▲ 개성공단 무단 가동 모습 확인… 폐쇄 후 처음



▲ 국방부,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한미일 실시간 공유 협의중 /사진 뉴시스  
▲ 방위사업법 개정안 통과, 8월부터 무기체계 도입 기간 절반으로 단축



# “외교안보 큰 변화… 한일관계 개선, 한미동맹 재건 등 성과”

윤석열 대통령, 취임 1년 소회  
“사우디 40조, UAE 39조 투자유치  
스타트업, 중소기업 도약에 큰 힘”

“나토정상회의 계기 방산수출 성과  
NCG 창설로 美, 한국에 방위 약속”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년을 앞둔 9일 “대통령직에 취임한 1년 전 이맘 때를 생각하면 외교 안보만큼 큰 변화가 이뤄진 분야도 없다”며 한일관계 개선, 한미동맹 재건 및 강화, 세일즈 외교 등을 성과로 꼽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취임 1년의 소회와 성과에 대해 언급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외교·안보 분야의 성과를 부각시키며 외교에 대해서는 취임 후 1년 동안 해외 순방에서 거둔 세일즈 외교 성과를, 안보와 관련해서는 한미동맹 재건과 한일관계 정상화, 한미일 3각 안보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년간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하고 정상 세일즈 외교를 폈다”며 “앞으로도 경제를 외교의 중심에 두고 우리 제품의 수출 확대와 해외 첨단기업 투자유치를 위해 열심히 뛰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세일즈 외교 성과로 사우디아라비아 빈 살만 왕세자 방한을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계기로 한 약 40조원에 달하는 26건의 업무협약(MOU) 체결, 아랍에미리트 국빈 방문 계기의 300억달러(약 39조 7440억원) 투자유치를 꼽으며 “이러한 대규모 오일머니의 국내 투자를 통해 우리 유망 스타트업, 벤처, 중소기업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도약하는 데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안보와 관련해서는 “취임 후 11일 만에 개최된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이 실질적으로 재건됐다”며 “작년 6월에는 한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해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자유의 연대를 구축하고, 글로벌 안보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산 수출 성과도 이뤄졌다”며 “이제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은 세계 4대 수출국을 목표로 한창 나아가고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북한의 선의에만 기댔던 대한민국의 안보도 탈바꿈했다”며 3축 방어체계 강화, 한미연합훈련 재개 및 실전훈련 강화, 한미상호방위조약능력 기반 업그레이드 등을 근거로 들었다.

특히, 지난 4월말 국빈 방미 계기 한미정상회담에서 이끌어 낸 ‘워싱턴선언’을 언급하며 “정상 차원의 합의 문서 도출과 핵협의그룹(NCG) 창설을 통해 미국은 핵무기를 포함해 전례 없는 수준으로 대한민국에 대한 방위를 약속했다. 대한민국은 미 핵자산 운용에 대

한 공동 기획, 공동 실행을 통해 확장억제를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또 “지난 일요일 기시다 총리가 일본 총리로서는 12년 만에 대한민국을 양자 방문했다”며 “3월 16일 일본 방문으로 재개된 한일 셔틀외교가 복원되기까지 12년의 세월이 필요했지만, 양국 정상이 오가는 데에는 두 달이 채 걸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한일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간 경제·산업·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후쿠시마 오염수 현장 시찰단 한국 전문가 파견,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계기 히로시마 한국인 원폭 피해자 위령비 한일 정상 공동참배를 언급했다.

아울러 G7 정상회의에서 예정된 한미일 3국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워싱턴 선언으로 한미 간 대북 확장억제 강화에 이어 한미일 안보 공조를 통해 역내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연대를 보다 공고히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한일 양국이 서로 교류 협력하면서 신뢰를 쌓아간다면 한일관계가 과거 가장 좋았던 시절을 넘어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각 부처는 한일정상회담에서 논의한 협력 사항들을 꼼꼼히 챙기고 진행시켜 우리 국민이 그 혜택을 직간접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국제사회는 지난 70년간 주권 평등, 영토보전, 분쟁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규범에 기반해 질서를 구축하고 자유, 평화, 번영을 구현해왔다”며 “우리 헌법은 정부와 국민에게 이러한 국제규범도 국내법과 같이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우리 정부는 분쟁의 군사적 해결과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반대해 왔다”며 “특히, 안보와 경제가 국제 협력하에서 이뤄지는 것인 만큼 국제규범의 존중과 준수는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metroseoul.co.kr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더 늘려야”

>> 1면 ‘어떻게 죽어야 할 것’서 계속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중앙호스피스센터인 국립암센터 호스피스 병동의 경우, 호스피스 병상이 부족해 입원 대기 중 사망에 이르는 환자가 지난 2021년에서 2022년까지 198명에 달했다. 국립암센터 호스피스 병동의 연도별 평균 대기인원은 2020년 457명, 2021년 368명이었다.

정부는 민간과 공공의 호스피스대기 환자 중 사망자 현황 관련 데이터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난해 국정조사를 통해 드러나기도 했다. 이에 인재근 의원은 지난해 12월 정부 차원에서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인재근 의원실 관계자는 9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제도 정착은 굉장히 빠르게 되고 있다. 젊은 층은 둘째치고, 노년층에서 굉장히 공감대가 넓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문제는 사람들을 수용할 시설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 연명 의료를 중단하면 호스피스 병동으로 가든가, 본인 집에서 삶을 마치는 것인데, 자택으로 갈 경우 아파트 등 우리의 집 구조상 사실상 감당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사전연명의료결정에 대한 접근성도 확대해야 한다. 기존 의료기관·지역 보건 의료기관에서 노인복지관을 추가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 넓어졌으나, 사실상 더 늘어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해당 업무



가톨릭대 대전성모병원 호스피스팀이 지난 2021년 5월 7일 오후 어버이날을 앞두고 병동 입원 환자를 찾아 카네이션과 직접 만든 비누, 방향제 등을 전달하고 있다.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호스피스 대상환자 서비스 이용률 현황>(2022.07 기준) /보건복지부·인재근 의원실 재편집

| 구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
| 이용률(%) | 15.0  | 17.5  | 22.0  | 22.9  | 24.3  | 23.0  |

를 수행할 인력과 그에 따른 예산이 필요하다”며 “또한, 사전연명의료결정을 가족이나 친척, 친지와 공유하는 문화의 확산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웰-다잉’ 정부 공적 역할 충실해야

정계은퇴후 ‘웰-다잉(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 품위를 지키며 삶을 마무리하는 것)’ 운동에 투신하고 있는 원혜영 웰다잉문화운동 공동대표도 호스피스 병동 부족 문제에 대해 “병원 입장에서 말기환자를 집중 치료하는 게 엄청난 매출이 온다. 온갖 처치 다 하고 수술하고 신약을 쓰면서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한다. 하지만 정신과 육체의 안정, 편안함을 주는 호스피스 병동 운영은 비용 대비 편익이 나오지 않는

다”고 말했다.

원 공동대표는 “이런 이유로 민간 병원은 호스피스 병동을 만드는 것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공적인 투자가 절실하다. 코로나19 대유행 때 호스피스 병동 상당수가 코로나19 대응 시설로 전환됐다. 이를 재빨리 원위치 시키고 공공부문에 투자해 확충을 해나가야 한다”며 “연명의료결정법 제5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사회적·문화적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연명의료 등록기관을 늘리고 ‘웰-다잉’에 대한 조례 제정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 관광객 사상최대?… 실상은 ‘짚내투어’

### ● 차이나 뉴스&리포트

노동절 연휴 여행객 19% 늘었지만  
매출 1480억 위안, 0.7% 증가 그쳐  
“줄어든 소비, 낙관론은 시기상조”

올해 중국 노동절 연휴에 관광객이 가장 많이 몰린 곳은 쑤보(淄博)였다. 중국 산둥성에 위치한 공업 도시로 중국인들조차 잘 알지 못했던 곳에 하루 평균 10만명의 관광객을 불러모은 것은 다름 아닌 꼬치구이다.

한국돈 1만원이면 30개는 먹을 수 있는 싸고 푸짐한 꼬치구이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소문이 나면서 호텔 객실 점유율이 중국 전역을 통틀어 최고치를 기록했다.

노동절 관광객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지만 중국 경제를 보는 시각은 오히려 더 어두워졌다. 그간 못했던 여행을 떠나기는 하지만 쑤보와 같이 돈은 가능한 아끼는 전형적인 불황형 소비를 그대로 보여주면서다.

9일 중국 문화관광부에 따르면 노동절 연휴 기간 중국 내 여행객 수는 2억 7400만명으로 팬데믹 이전인 2019년보다 19.1% 늘었지만 여행 매출액은 1480억위안으로 0.7% 증가에 그쳤다.

인당 소비 금액으로 보면 540위안으로 2019년 603위안을 밑돈다. 지난 3년간 경제성장과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제 소비는 2019년 대비 90%선이 아니라 한참 떨어진다. 교통이나 입장권 같이 비용은 고정됐으니 먹고 마시는 데 쓰는 돈을 크게 줄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로이터는 “중국 관광객들의 귀환은 국내외적으로 안도감을 줬지만 줄어든 소비를 보면 어떤 낙관론도 시기상조가 될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값싼 꼬치구치가 중국 관광객들에게 만족스러운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이번엔 여행 검색어로 상위에서 오른 것은 ‘특전사여행(特種兵旅游)’과 우리말로 짚내투어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 ‘가난한 여행(窮游)’이었다.

특전사여행은 짧은 시간에 가능한 한 많은 관광지를 보면서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식이다. 이전엔 대학생들이나 선호했지만 이제는 일반적인 여행 방식 중 하나가 됐다.

반면 럭셔리 리조트와 대규모 면세점이 준비해 최고 휴양지로 유명한 하이난은 각광을 받지 못했다. 하이난 해관에 따르면 노동절 기간 하이난 면세 매출은 8억8000만위안으로 2021년보다 22% 줄었다.

폭발한 보복여행에도 중국면세그룹과 여행 플랫폼 기업인 씨트립, 통청위싱 등의 주가는 일제히 부진을 면치 못했다.

신영증권 성연주 연구원은 “중국 경제지표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원인 중 가장 큰 부분이 가계 수요이고, 이에 따라 향후 여행 수요 역시 지속될 수 없다는 우려감이 주가에 반영됐다”며 “가계 소득 감소로 소비 부진이 여전히 부동산 등 경기 회복 조짐이 완연히 나타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smahn1@



# 약식회견 중단... 野 지도부 외면... 소통·통합행보 ‘주춤’

## 국정 운영

윤석열 정부가 2022년 5월 10일 출범한 지 어느덧 1년을 맞이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청와대 개방과 용산 이전을 선언했고, 취임 당일부터 용산 대통령실에서 집무를 시작하며 ‘용산시대’의 막을 열었다.

광복 이후 이승만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가 있던 청와대는 국민들에게 전면 개방됐다. 집계에 따르면 지금까지 청와대를 다녀간 전체 관람객은 34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통을 강조하며 용산시대를 연 윤 대통령은 헌정사상 최초로 출퇴근하는 대통령으로 기록됐고,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회견)까지 진행하며 과격적인 행보를 이어갔다.

## 출근길 도어스테핑 61차례 진행 가감 없는 입장 표명에 논란도 100일 이후 공식 기자회견 없어

역대 대통령들에게서 볼 수 없었던 현직 대통령의 약식회견은 각종 현안에 대해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윤 대통령의 ‘소통 이미지’를 부각시키는데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면서도 윤 대통령의 가감 없는 입장 표명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윤 대통령의 약식회견은 취임 둘째 날부터 지난해 11월 18일까지 61차례에 걸쳐 이뤄졌으나, 대통령실의 참모와 MBC 기자와의 공개적인 충돌을 이유로 6개월 만에 중단됐다. 약식회견을 위해 기자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가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단 한차례의 회동이 없었으며 박광온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의 회동 제안에 당대표가 우선이라는 취지로 대응한바 있다. /뉴스시스

이 이동했던 진흙임로는 나무로 된 가림벽이 한동안 세워졌고, 최근 대리석 벽으로 공사가 완료됐다.

대신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대통령실 출입기자단이 용산어린이정원 사전개방 행사 후 진행된 오찬에 깜짝 등장해 처음으로 기자단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윤 대통령이 기자단과 대면한 것은 지난해 11월 18일 마지막 도어스테핑 이후 165일 만이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의 취임 후 공식 기자회견은 지난해 8월 17일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으로 이후 공식 기자회견은 열리지 않았다.

당시 윤 대통령은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이전한 가장 중요한 이유로 ‘출근길 약식회견’을 꼽으면서 “새로운 ‘대통령 문화’를 만들어 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미흡한 게 있어도 계속되는 과정에서 국민께서 이해하시고 또 미흡한 점들이 개선돼 나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언론과의 소통이 궁극적으로 국민과의 소통”이라며 “민심을 가장 정확하게 읽는 언론 가까이에서 제안도, 쓴소리도 잘 경청하겠다. 100일을 맞아 열린 이번 기자 간담회가 끝이 아닌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자주 여러분 앞에서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약식회견 중단에 이어 취임 첫째 해 신년 기자회견도 ‘조선일보’와의 인터뷰로 대신했고, 취임 1주년 기자회견도 생략됐다.

## ◆국정운영의 파트너 野와의 소통은 언제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여당 지도부와 의회와 만찬을 비롯해 당정 협의 등을 통해 국정운영과제 추진에 매진하고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취임 후 1년 동안 국정 운영의 파트너인 야당 지도부와 의회 회동은 이뤄지지 않으면서 최장기 기록을 매일 갱신하고 있다. 기존 최장기 기록은 문재인 대통령과 홍준표 자유한국당(현재 새누리당) 대표의 회동은 문 대통령 취임

339일 만에 이뤄진 바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는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을 비롯해 국정운영과 제들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선 압도적 여소야대인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치는 필수다.

최근 대통령실도 이를 의식한 듯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가 취임하자마자 이진복 정무수석이 여야 원내대표단을 만날 의향이 있다는 윤 대통령의 뜻을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부터 만나는 것이 순서라고 입장을 밝히며 거절했다.

대통령실이 이 대표가 아닌 박 원내대표와의 회동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현재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 수사를 받는 이 대표와 만나기 어렵다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 野 지도부 회동 최장기 기록 경신 수사중인 이대표 상황 등 고려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 협치 난항

이에 이재명 대표는 지난 4일 “대통령께서 야당 대표를 만나는 것이 여러 사정으로 어렵다면 원내대표와 만나는 것도 저는 껄떡치 않겠다”며 윤 대통령과 야당과의 소통에 힘을 실었다.

하지만, 박 원내대표는 이후 입장문과 공개 회의석상 발언 등을 통해 ‘대통령이 하루속히 야당 대표와 먼저 만나 국가 위기의 극복 방안을 논의하는 게 순리이고 순서’, ‘정치복원을 위해서는 하루빨리 이 대표와 만나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며 사실상 거절 의사를 피력했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metroseoul.co.kr

# 공고해진 한·미·일 ‘3國’ 공조... 멀어지는 중·러

## 외교분야

## 자유민주주의의 중심 ‘가치 외교’ 실현 중·러 노골적 불만 제기... 경제 영향

윤석열 정부는 출범부터 자유민주주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 연대를 강조하며 견고한 ‘한미일 3국 외교’ 중심으로 경제안보의 틀을 잡는 방향을 잡으며 문재인 정부와 달리 ‘가치외교’를 중점에 뒀다.

윤 대통령 지난해 취임 11일 만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을 갖고, 미국이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견제하려고 구상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를 선언했다.

같은 해 6월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스페인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확대회의에 참석해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첫 한미일 정상회담을 가지며 한미동맹 강화뿐만 아니라 경색된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초석을 닦았다.

한미일 삼각 협력은 같은 해 11월 프놈펜에서 열린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관련 정상회의를 계기로 ‘인도-태평양 한미일 3국 파트너십에 대한 프놈펜 성명’을 통해 안보 영역과 그 외 영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3일(현지시간) 프놈펜 한 호텔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역에서도 3국 연대를 더욱 긴밀하게 공고히 해나가기로 확대시켰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북한 미사일 정보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고, 첨단기술 등 경제 협력까지 의견을 함께했다. 이와 함께 지난 3월 윤 대통령의 일본 실무 방문에 이어 지난 7월 기시다 총리의 실무 방문이 이뤄지면서 12년 만에 복원된 서틀 외교를 통해 한미, 한일, 한미일 연대는 더욱 견고해졌다.

이처럼 한미일 3국 연대가 강화됐으나, 중국과 러시아와는 더 멀어지는 결과를 낳게 돼 미·중 패권경쟁의 ‘냉전’에 한국이 중심에 섰다는 평가다.

특히, 프놈펜 공동성명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직접 겨냥하며 대만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명시한 것이다.

공동성명은 “3국 정상은 국제질서의 근간을 뒤흔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잔혹하고 정당화될 수 없는 침략전쟁에 대해 우크라이나와 함께 한다는 의지를 확인한다”며 “핵 위협을 통한 러시아의 강압과 위협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 “불법적인 해양 권의 주장과 매립지역의 군사화, 강압적 활동을 통한 것을 포함해 그 어떤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3국 정상은 대만 관련 기본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강조하고, 국제 사회의 안보와 번영에 필요 요소로서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고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국민 방미 전 한 언

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하고, 대만 문제에 대해서도 중국과 대립각을 세워 중국과 러시아의 노골적인 불만을 받기도 했다.

문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내외 리스크에 따른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와 저성장까지 맞물린 복합 위기를 비롯해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수출 감소세가 이어지며 무역적자도 ‘역대급’으로 불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과의 갈등도 우리 경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30년 동안 유지된 대중국 무역흑자가 적자로 전환된 시점에서 과거 ‘사드 보복’과 같은 중국의 경제 보복 조치가 재개될 경우, 우리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액은 496억2000만달러(약 65조 6700억원), 수입액은 522억3000만달러(69조1200억원)를 기록하면서 지난해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14개월째 적자 흐름을 이어갔다. 이는 1995년 1월~1997년 5월(17개월) 이후 가장 긴 기간의 연속 무역적자로 올해 들어 무역적자 누적치는 250억 6000만달러(약 33조1600억원)로, 작년 연간 적자 누적치 477억달러(약 63조1300억원)의 절반을 불과 넉 달 만에 넘어섰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우리금융 이석준 NH농협금융 회장.



/NH농협금융 지난해 산은 노조 임원들이 지방이전 반대 투쟁 식발식을 진행했다. /금융노조 유튜브 캡처

# 수장교체 등 ‘新관치금융’ 논란 속 금리인하·상생금융 반색

## 윤석열정부 1년과 금융

### (上) 지주회장 교체, 산은 이전 추진

윤석열정부가 출범한 지 1주년이 됐다. 최근 1년은 금융시장 불안과 경기 긴축이 이어지는 지점이었다. 윤 대통령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금융권의 역할을 강조했다. 은행은 공공재 성격이 강하다는 대통령의 직접적인 발언 이후 금융권은 대출금리 인하는 물론 ‘상생금융’ 정책을 대거 쏟아냈다. 일부에선 ‘신(新) 관치금융’이란 꼬리표를

붙였지만 금융소비자들은 이를 반겼다.

최근 1년 동안 금융시장에선 금융지주 회장 교체를 비롯해 상생금융, 산업은행 이전 등이 화두였다.

#### ◆ 금융지주 회장, 대거 교체

지난해 금융권은 대규모 최고경영자(CEO) 인사시기를 맞이해 연임이나 새로운 얼굴이나에 대한 이야기가 화두였다. 신한금융을 비롯해 우리금융, BNK금융, NH농협금융 등 금융지주사회장이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대표적으로 당시 조용병 전 신한금융

회장과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은 시장에서 유력하게 연임을 전망했었다.

2019년부터 신한금융과 우리금융 실적은 매년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대교체라는 명분으로 2명 모두 연임을 포기하고 돌연 사퇴를 선언했다.

금융권에서는 2명 모두 사모펀드 사태 관련 징계 대상자였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는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책임론 때문에 퇴진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조 전 회장은 사모펀드 사태 당시 금융지주 회장이었고 손 전 회장은 우리은행 파생결합펀드(DLF) 및 라임펀드 판매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다. 금융당국이 징계를 확정된 DLF사태와 라임펀드 사태에서 조 회장은 경징계, 손 회장은 중징계가 확정됐다. 금융당국이 사모펀드 사태 책임을 물어 사실상의 사퇴 압박이 있었고 이들이 백기투항한 것으로 금융권은 해석했다.

이후 차기 회장 자리에 윤 대통령 측근들과 대선캠프 당시 함께한 인물들의 이름이 수차례 언급됐다.

결과적으로 우리금융 회장 자리에는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이 확정됐다.

비슷한 시기 NH농협금융 회장 자리에도 손병환 회장에서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으로 교체됐다.

尹, 은행 공공재 성격 강하다 발언  
금융권, 상생 정책 대거 쏟아내  
세대교체 명분에 신한 등 수장 사퇴

이석준 NH농협금융 회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캠프 초기 좌장을 맡아 초반 정책 작업에 관여했고 당선인 특별고문으로도 활동했다.

시장에서는 NH농협금융지주와 우리금융 등 금융지주 회장 선출 과정에서 정부가 입김이 있었을 것이라 추측이 나왔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관치금융은 과거나 현재나 큰 차이가 없이 드러나지 않지만 진행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면서 “금융사의 CEO 승계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만드는 등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 ◆ 소통 없는 독단적 산은 부산행

윤 대통령의 대선 기간 대표 공약 가운데 하나였던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 다만 산은 노조와 대화 단절된 상태에서 강행하고 있어 불만이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후보시절 부산을 방문해 ‘KDB산업은행 부산이전’ 공약을 발표했다. 이어 지난해 5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국정과제로 선정됐다. 산은 부산이전 이슈는 과거부터 언급됐던 내용이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첫발을 뗀 후, 매년 선거철만 되면 지자체장과 국회의원들이 표심몰이를 위해 공공기관 유치 공약이나 관련 법안을 내놓았다.

실제 지난해까지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한국에타결제원 등 총 151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산은 부산이전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책금융의 허브로 오랫동안 서울에 자리잡아 온 산은이 이전 할 시 그간 구축해온 네트워크가 붕괴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영국 글로벌 컨설팅그룹 지엔(Z/Yen)사가 전 세계 130개 도시를 대상으로 분석한 ‘국제금융센터지수(GFCI) 33차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는 130개 도시 중에 10위로 평가받았다.

2015년 이후 기록한 최고 순위로 10위권 재진입에 성공했다. 지난 2019년에는 30위권 밖이었고 2021년에는 13위, 2022년에는 11위였다.

금융중심지 서울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상황에서 산은 부산 이전은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산은부산이전시 IBK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뿐 아니라 한국투자공사도 지방 이전 검토 대상으로 언급되고 있어 금융 분산에 대한 우려도 가중되고 있다.

또한 산은부산이전이 언급되면서 지난해 산업은행을 떠난 퇴사자 수가 100명에 육박했다. 이는 정년퇴직 인원을 제외한 순수 중도 퇴사자 수로 예년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규모로 본점 부산이전에 따른 ‘엑소더스(대규모 탈출)’가 현실화되고 있다.

대선 공약 산업은행 이전 현실화  
부산 이전 ‘지역균형 발전’ 내세워  
한국투자공사 등 지방 이전 검토 언급

이런 상황에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산업은행을 부산이전 공공기관으로 관보에 지정·고시했다.

국토부는 “이전 공공기관 지정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을 수도권 잔류기관에서 제외한다”라고 명시했다. 2005년 1차 공공기관 이전 당시 산업은행은 ‘동북아 경제중심지 조성에 필수적인 기관’이라는 이유로 이전 대상에서 빠졌는데, 이번 조치로 포함 대상이 됐다는 얘기다.

산은 노조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유관기관들에 ‘기관 내부 노사 협의를 통해 이전기관 지정을 신청’ 하라고 안내했지만 금융위원회와 산은 경영진은 노조와 어떤 노사 협의도 진행한 적이 없다”며 “균발위가 안내한 절차를 스스로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윤석열정부 1년을 맞이한 만큼 다시 한 번 뒤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청정의고장**  
**청정고추의 고장**  
**청정사과의 고장**

**대한민국 최고라는 자부심으로 재배 생산되는 영양청결고추**

**남영양농업협동조합 조합장 박명술**





IBK기업은행

금융으로  
만나는 새로운 세상

# 기업은행의 변화는 기업이 중심.

어려운 시기에 기업을 한다는 것

그 마음의 무게를 잘 알기에

기업운영에 더 큰 힘이 되기 위해

기업은행이 작은 것부터 바꿔 나가겠습니다



( 조건 없이 전체 기업고객  
기업뱅킹 이체 수수료 0원 )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시급”… 野, 특별법 단독 처리 시사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 간담회  
“여당, 논리적 수용에도 결론 지연  
급하다 해서 추진… 기다릴 수 없어”

전세사기 특별법안 국회 협상 과정에서 특별법 적용대상과 보증금 보전 대책을 두고 여야 간 입장 차가 뚜렷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9일 “정부여당이 결정을 미루면 불가피하게 합의된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피해자의 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하는 것을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전세사기 문제에 대해서 큰 틀에서 지난 여야 3당 정책위의장 협의 때까지만 해도, 여당에서 특별법 논의에 소극적인 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요청해서 논의에 들어갔다”면서 “상임위 논의사항을 확인해보면, 여당이 민주당의 요구를 회의적 상에서 논리적으로 수용했음에도 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제로 결론을 내는 것은 지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정부가 제시한 피해자인정 기준을 완화하고 보증금 우선 변제를 통해 피해자를 지원하자는 입장이며, 사실상 법안의 단독 처리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야는 10일 국토위 소위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을 논의한다.

김 정책위의장은 “법안을 단독으로 추진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야당 단독 안이라고 말씀 드린 것은 아니다. 현재까지 논의에 근접한 내용에 대해서 여당이 적극적인 태도를 안 보였기 때문이다. 특별법은 급하다고 해서 추진했다. 마냥 기다릴 수 없다. 최대 한도로 보장 하되, 시간도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원내대

책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임대주택과 경매 주택 우선 매수권만 주는 대책만 주고 있다. 민주당은 이 둘 만으로 유의미한 구제책이 안 된다는 판단이다. 이 두 가지를 포함해 제3의 선택지를 가질 수 있도록 정부가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우선 변제 제도를 개선해서 보증금을 일부 회수하는 방안, 보호 대상에서 빠진 강동 전세 주택 부분들에 대해서도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며 “정부의 진전된 입장이 나오길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3일 열린 국회 국토법안심사소위에 참여한 허종식 민주당 의원은 회의 중간에 기자들과 만나 “강동 전세도 사기성이 인정되면 전세 피해로 보는데, 어떻게 사기로 볼 건지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다. 미추홀구, 빌라왕 사례가 다르다”며 “상업용 빌라 사기 사건은 주택이 아니라 피해자가 아닐 수 있는

데, 그 부분까지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의 바램은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라며 정부여당의 자세 변화를 촉구했다.

한 대변인은 “지난 10여 일 동안 국토소위의 법안 심사과정에서 야당 의원은 물론이고 여당 의원조차도 정부의 구제 대책이 미진하다는 데 입장을 같이했다. 피해임차인들은 전 재산이거나 빚으로 마련한 전세보증금을 날릴 상태다. 그런 임차인들에게 ‘추가로 빚을 내 줄테니 그 집을 사라’는 정부여당의 주장은 남의 얘기일 뿐”이라며 “특별법 적용대상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내용은 즉각 수정돼야 한다. 피해자측 의견을 경청해서 피해보증금 보전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스스로 보전대책을 내지 못한다면 야당의 보증금 보전대책을 수용하라”고 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 與 “김재원·태영호 징계, 사실관계 추가 확인”

‘당원권 정지 1년’ 중징계 가능성 거론  
일각선 내용 우려 자진사퇴 압박 풀이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수위 결정을 보류했다. 당이 위기 상황인 만큼 빠르게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윤리위는 지난 8일 ‘사실관계 추가 확인 필요’라는 이유로 결론을 내지 않았다. 이와 관련 ‘자진 사퇴’ 압박으로 내용을 피해 가려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윤리위는 지난 8일 회의에서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으로부터 징계 안건 관련 소명을 들었다. 이후 추가 사실관계 확인 이후인 오는 10일 3차 회의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당시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각 최고위원 별로 세 가지 (추가 사실 확인이 필요한) 사유가 있다. 참고 서류, 관련자 진술서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소명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

그것을 뒷받침하는 소명 자료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두 최고위원이 사퇴하면 ‘징계 수위’ 조정에 반영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사실상 소명 자료 제출부터 징계 수위 결정 시점인 이틀 동안 윤리위가 자진 사퇴 압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황 위원장은 ‘최고위원직을 사퇴하면 양형에 반영하는가’라는 기자들 질문에 “만약 정치적 해법이 등장한다면 그에 따른 징계 수위는 여러분이 예상하는 바와 같을 것”이라고 했다.

9일 국민의힘 상황을 보면, 두 최고위원에 대한 ‘당원권 정지 1년’ 중징계 가능성이 거론된다. 문제는 ‘당원권 정지 1년’이란 중징계 시 두 최고위원의 내년 총선 출마가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두 최고위원의 징계 수용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불복 시 법적 다툼으로까지 번져 내용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앞서 두 최고위원은 자진 사퇴 가능

성을 일축한 바 있다.

태 최고위원은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도부나 당 관계자로부터 자진사퇴하라는) 여러 가지 소통은 지금 (문자까지) 수백 통 오고 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추가로 드릴 말씀은 없다”며 자진 사퇴 가능성을 일축했다.

김 최고위원도 지난 8일 윤리위 소명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자진 사퇴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자진 사퇴 요구를 누구에게도 들어본 적이 없다. 지금 이 자리에서 처음 듣는 얘기”라고 했다.

한편 김기현 당 대표는 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두 최고위원의 징계 가능성에 따른 지도부 공백 가능성이 나오는데 대해 “지도부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니 공백이 아니다. 일부 결원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어떻게 공백이냐”며 일축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TF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 국민의힘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TF’ 출범 “국민 관점에서 日 오염수 방류 대안 마련”

밥상 안전확보 세미나 개최 예정

국민의힘이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문제 대응 차원에서 9일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TF’를 띄웠다.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TF는 정부가 후쿠시마에 파견하는 시찰단에게 국민 안전과 관련한 세밀한 주문을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수산물 밥상 안전 확보 차원에서 전문가·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세미나도 열기로 했다. 당 차원에서 출범시킨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TF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첫 회의를 갖고 이같이 정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TF 위원 임명장 수여식과 첫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TF 위원장으로 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성일종(재선, 충남 서산·태안) 의원이 임명됐다. 위원은 해양수산부·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상임위원회 등 원내 인사와 김종덕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강건욱 서울대 방사선화학연구소장 등 해양·방사능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첫 회의에서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번 한일정상회담에서 대외적인 전문가 심사 합의뿐 아니라 추가적 검증까지 이뤄진 점을 언급한 뒤 “정부 대책을 국회

정 간 긴밀히 소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해 국민 관점에서 조금도 불안이 없게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대출 당 정책위의장도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한국을 포함한 미국, 중국 등 11개국 전문가들로 모니터링 TF를 구성, 오염수 처리 과정을 검증하며 다음 달이면 최종 보고서가 나온다. 한일 정상이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국 전문가단의 현장 검증 합의를 발표한 것은 국민적 우려를 과학으로 해소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했다.

1차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성일종 위원장은 “중요한 것은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에 대한 신뢰성 확보 문제”라며 “지금 채취하는 수산물에 방사능이 나온 적은 없지만, 국민 불안을 해소할 방안을 찾아보자는 이야기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오는 23~24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 시찰단을 파견하는 것과 관련 “우리 국민 안전을 위해 조금 더 주물물 게 있으면 세밀하게 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이야기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이 먹고 있는 수산물, 밥상 안전 확보 차원에서 TF가 앞으로 세미나 같은 것을 열어 전문가나 여러 유관기관도 참여해 함께 문제를 다뤄 국민을 안심시키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최영훈 기자

## 유인태 “1, 2번 아니면 생존 불가… 중대선거구 개혁 필요”

〈前 국회 사무총장〉

국민공감서 정치 현황 관련 특강

야당 원로 정치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9일 “우리 사회가 다원화됐으니, 주요 정당은 100여석 남짓, 나머지 20~30석 정도 되는 정당 2개 정도로 다당제가 될 필요가 있지 않나”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신년 인터뷰에서 언급한 중대선거구제 개혁 필요성을 재차 언급한 것이다.

유 전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친윤(親 윤석열)계 공부모임 ‘국민공감’ 강연자로 나서 “한국 정치 이대로 괜찮은가”란 주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공부모임 ‘국민공감’에서 강연을 맡은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제의 특강을 하면서 “지금 우리가 기후 위기, 인구 절벽, 지방 소멸 등 해결할 문제가 있음에도, 심하게 말하면 지금

국회의원들은 재선 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불행한 현실”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당제로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당도 자꾸 누구를 찍어내려 하지 말고, 지금은 기호 1, 2번이 아니면 생존이 안 되는 생태계를 갖고 있으니 주도권을 잡으려고 1번 당에 모여 있는데, 서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한 정당을 해도 생존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 주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고도 말했다.

한편 이번 특강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도 참석했다.

/최영훈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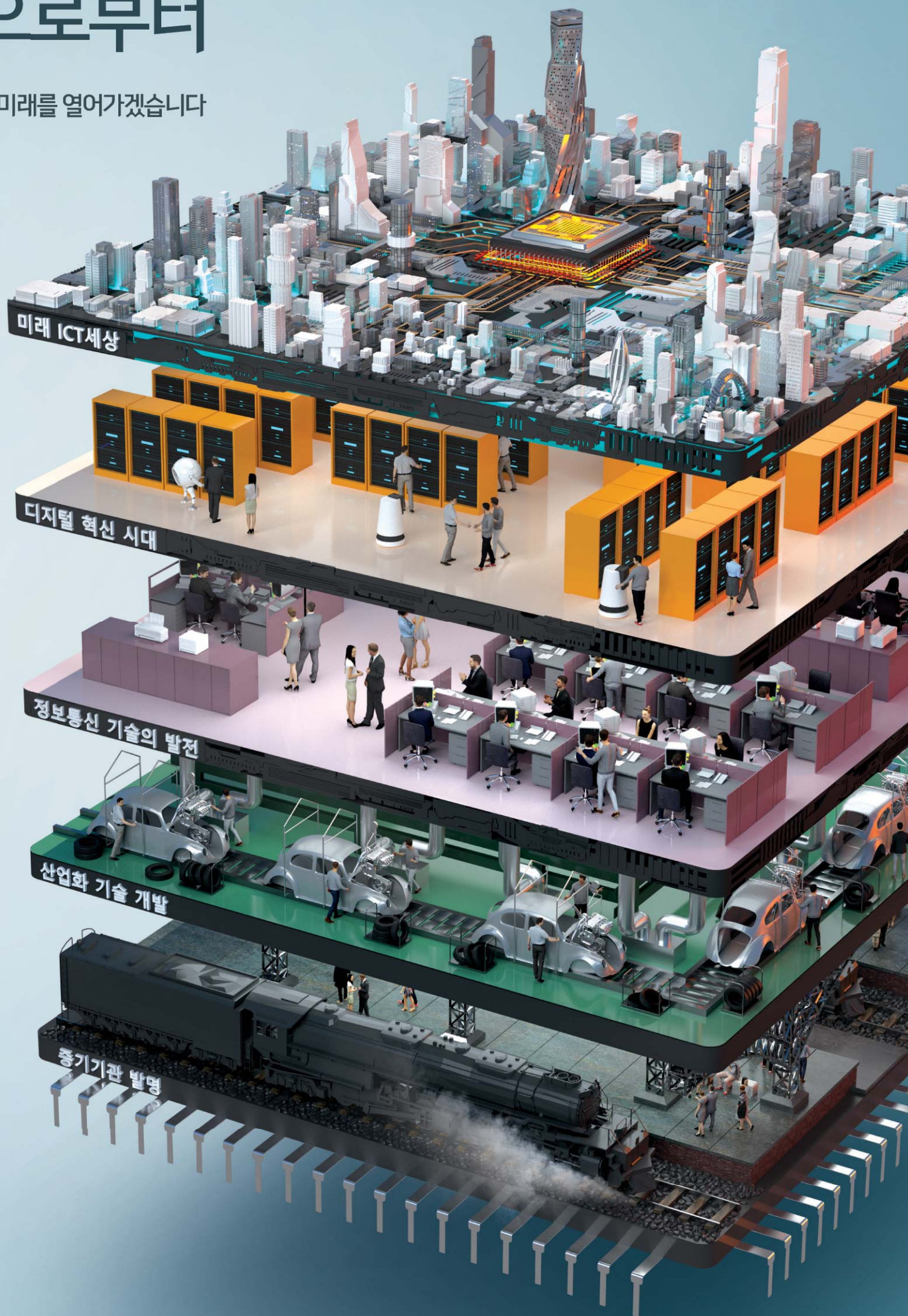
2030 부산세계박람회유치  
SK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더 나은 지구와 인류의 미래를 위한 행동,  
World EXPO 2030 BUSAN의 시작!

WAVE

# 문명의 진보는 기술의 혁신으로부터

SK하이닉스는 반도체 기술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We Do Technology  
첨단기술의 중심, 더 나은 세상을 만듭니다





# 빛 값는 고신용자, 빛 내는 중저신용자… 금융 양극화 심화

최근 시중은행 가계대출 감소세  
한달 새 3.3조 줄어 677조원 대  
정기 예·적금 잔액은 1.3조 늘어  
금리 높은 2금융권 대출은 증가  
카드론·현금서비스 22.5조 늘어  
저신용자 상환능력 저하 우려

고신용자와 중저신용자 간의 금융 양극화가 뚜렷해지고 있다. 최근 시중은행의 대출 수요는 감소세를 기록했지만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 2금융권 대출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677조 4691억원으로 집계됐다. 한 달 사이 3조 2971억원(0.48%) 줄었다. 가계대출 잔액 감소세는 지난해 1월부터 16개월 연속이다. 반면 시중은행의 정기 예·적금 잔액은 한 달 새 1조3000억원 늘었다. 시중은행을 이용할 수 있는 고신용차주들이 대출을 갚고 예금을 늘린 것으로 풀이된다.



고신용자와 중저신용자간의 금융양극화가 확대되고 있다.

/뉴시스

## ◆ 신용등급 따라 수요 양극화

하지만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2금융권 대출은 증가하고 있다. 급전이 필요한 중저신용 차주가 늘어나고 있다는 방증이다. 전업카드사 7곳(신한·삼성·KB국민·롯데·현대·우리·하나카드)의 올 1분기 카드론 및 현금서비스 누적액은 22조5405억원으로 각각 3조6000억원, 4조5000억원씩 증가했다.

금융권에서는 현금서비스가 총부채 원리금상환비율(DSR)에 포함되지 않아 고신용차주의 이용률 또한 높다는 분석이다. 신용점수 전반에 걸쳐 ‘급전’이 필요한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다.

일각에선 중저신용차주의 상환능력 저하를 우려하고 있다. 카드론과 현금서비스는 ‘서민들의 급전창구’라고 불

리는 만큼 중저신용자의 수요가 높은 편이다. 시중은행 대비 고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고신용 차주의 상환능력은 올라가고 중저신용 차주의 상환능력은 떨어지는 ‘금융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20~30대의 빛이 가장 많이 증가했다. 20대의 경우 신용등급을 책정하기 어려운 ‘신파일러(Thin Filer·금융거래가 거의 없는 사회초년생)’가 다수 포진했으며 30대의 경우 결혼 준비, ‘영끌’ 등 대출 이용이 증가하는 시기다.

지난달 한국은행이 더불어민주당 경숙 의원(기획재정위원회)에게 제출한 ‘가계대출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금융권(여신전문금융회사·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사)의 가계대출잔액은 2019년 4분기 대비 8.7% 증가했다. 이 가운데 20~30대의 대출잔액은 26% 늘었으며 ‘1인당 평균 대출액’은 32% 급증했다. 2030세대의 빛이 늘어난 셈이다.

## ◆ “저신용자 부채상환능력 키워야”

전문가들은 금융소비자 양극화 해소를 위해 중저신용자의 부채상환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표한 ‘소득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과제’에 따르면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의 대출 기준 강화는 차주의 부채상환능력을 확대할 수 있다. 다만 저신용자와 저소득자가 금융서비스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성숙 계명대학교 경제금융학과 교수는 20~30대를 중심으로 금융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청년 맞춤 해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우선 청년 맞춤 신용평가 제도가 필요하다”면서 “통상 신용점수의 경우 신용카드 사용내역, 연체내역 등을 통해 판단하는 데 20대는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스마트폰 요금 상환내역”과 같이 20대 눈높이에 맞는 기준이 필요하다”며 “청년 워크아웃 제도를 통해 대출금 할부 기한을 늘려 상환 액수를 줄여 줄 필요성도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 “금융사 해외 투자유치·진출 확대 지원”

금감원·금융권 해외 IR 공동 주최  
이복현, 동남아3국과 협력강화 논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국내 주요 금융사 최고경영자(CEO)와 함께 첫 해외 투자설명회(IR)에 나섰다. 이번 행보는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투자유치와 해외진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9일 금감원에 따르면 전날 출국한 이원장은 오는 12일까지 총 4박5일 일정으로 태국과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주요 3개국을 방문한다.

이원장은 금감원과 금융권이 싱가포르에서 공동으로 주최하는 해외 투자설명회(IR)에 참석해 금융사들의 해외 투자유치 활동을 지원하고, 동남아 3개국 금융감독기구 수장 등 최고위급과 만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먼저 9일 열린 IR행사에는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최현만 미래에셋증권 회장, 흥원



‘인베스트 K-파이낸스 싱가포르 IR 2023’에 참석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학 삼성화재해상보험 사장, 원종규 코리안리재보험 사장,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사장 등이 함께했다.

이원장은 “한국 금융을 둘러싼 대내외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지만 한국의 금융산업은 견실한 안정성 및 건전성·유동성을 유지하고 있다”며 “한국 금융

시스템은 전반적으로 대내외 위험요인 악화에 대비할 수 있는 충분한 회복탄력성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 정부와 금융당국은 글로벌 투자자의 한국 자본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고 투자자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며 “비거주자의 한국 외환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규제·감독 행정의 투명성·일관성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원장은 세타쑹 수티윌트나르 쏘트 태국 중앙은행(BOT) 총재, 호현신 싱가포르 통화감독청(MAS) 부청장, 마헨트라 시레가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장(OJK) 등 3개국 금융감독기구 수장들과 연세 회동도 갖는다.

이를 통해 현지에 진출한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영업활동 애로 해소를 요청하고 양국 금융당국 간 협력 강화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 롯데손보 1분기 영업익 1050억 분기 사상 최대 실적

롯데손해보험의 1분기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롯데손해보험은 1분기 경영실적을 공시하고 1050억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했다고 9일 밝혔다.

보험영업이익 470억원과 투자영업이익 580억원을 달성했다. 장사 이래 개별 분기 최대 이익이다.

장기보장성보험 분기 신규월납액 역시 사상 최대인 108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 52억원에 비해 107.7% 상승했다.

/김정산 기자

## “4대 연금 하나계좌로 받으면 우대금리”

하나은행, 6월 30일까지 이벤트  
파리바게트 상품권 전원 증정

하나은행은 오는 6월 30일까지 4대 연금을 하나은행 계좌로 받으면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적연금, 군인연금 등 4대연금을 받는 고객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벤트 기간 중 ▲하나은행에서 새롭게 4대연금을 받는 고객 ▲타 금융기관에서 하나은행으로 연금계좌를 변경한 고객 등 하나은행을 통해 4대연금을

처음 받는 고객에 ‘2만 원 상당의 파리바게트 상품권’을 전원 증정한다.

영업점 방문 시 연금신규손님 전용 1년제 정기예금 우대금리 혜택도 제공한다.

기존에 하나은행에서 연금을 받고 있는 고객도 하나원큐를 통한 이벤트 응모 시 ‘연금 하나 월복리 적금’ 금리우대쿠폰 0.5%를 전원 추가 제공한다.

‘연금하나 월복리 적금’은 하나은행에서 연금을 받는 고객이 분기별 300만 원까지 입금이 가능한 하나은행의 대표적인 공적연금 특화 적립식 상품이다.

/구남영 기자

## 카드 News

하나카드, 트래블로그 서비스 강화  
첫 취급통화 18종 환율 100% 우대

신한카드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금융교육을 진행한다.

## ◆ 금융 취약계층 위한 교육

신한카드는 올해 ESG 경영의 일환으로 고령층 금융교육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를 시작으로 금융취약계층 대상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고령층을 포함한 느린학습자, 청소년 등 10만명에게 금융교육을 실시했다.

금융상품의 다양화와 고도화에 따라 디지털 역량을 활용한 교육을 개발했다. 올해 5000명에게 맞춤형 디지털 금융교육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교육을 위해 지난 2월 서울50플러스센터 5개 지역(노원, 성동, 동작, 영등포, 서대문) 및 사단법인 피치마켓(PEACH MARKET)과 ‘디지털금융 취약계층 역량강화 지원을 위한 디지털 금융강사 양성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롯데카드가 ‘셀리(Selly)’ 고객을 대상으로 의료비 할인 행사를 마련했다.

## ◆ ‘이공일컴퍼니’와 협업

롯데카드는 의료복지플랫폼 ‘서울메디컬’ 운영사인 이공일컴퍼니와 제휴를 통해 비급여 의료비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롯데카드는 의료복지플랫폼 ‘서울메디컬’ 운영사인 이공일컴퍼니와 제휴를 통해 비급여 의료비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라식, 라섹, 임플란트, 교정, 모발이식, 피부관리, 자궁경부암 주사 등이다.

내달 30일까지 전국 약 130여개 서울메디컬 제휴병원에서 할인혜택을 받을



롯데카드X서울메디컬 의료비 할인 이벤트.

/롯데카드

수 있다. 셀리 이벤트 페이지 내 비급여 의료 복지 서비스 게시물에서 원하는 진료과와 병원을 선택해 예약 신청하면 된다. 예약을 할 때는 소속명에 ‘셀리’를 입력해야 한다.

하나카드가 자사 주력 상품인 ‘트래블로그’ 서비스 강화에 나섰다.

## ◆ 베트남, 태국, 스위스 등 환율우대 통화 추가

하나카드는 ‘트래블로그’를 통해 국내 최초 취급 통화 18종에 환율 100% 우대를 제공한다고 9일 밝혔다.

트래블로그는 ▲환율 우대 100% ▲해외이용수수료 무료 ▲해외 현금 인출 수수료 무료 등 해외여행과 관련 특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외여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하반기를 대비에 신규 서비스 개발과 편의성 증대에 집중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국내 최초로 베트남(VND), 태국(THB), 스위스(CHF) 등 18종 통화에 환율 우대 100%를 적용한다. 기존 혜택에 더불어 손님 중심의 편의성을 강화했다. 서비스 가입자는 90만명을 넘어섰으며, 환전액도 2300억원을 돌파했다.

해외여행 후, 남은 외화를 원화로 환급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니즈를 반영한다. 지난 6일을 시작으로 환급수수료를 5%에서 1%로 인하했다.

/김정산 기자



# 현대차그룹, ‘전기차 생산 인프라’ 속도… 글로벌 톱3 목표

2030년까지 총31종 라인업 갖춰  
기술·시설 고도화에 총24兆 투자  
전기차 부품 서플라이 체인 강화  
美 조지아주 공장, 연간 30만대 양산

현대자동차그룹이 전동화 시대 ‘퍼스트 무버’로서 고객 기대를 뛰어넘는 제품 공급과 국내 산업 기반 강화를 위해 올해 국내 전기차 생산 능력 확충에 속도를 높인다.

현대차그룹이 2024년 가동을 목표로 건설중인 미국 조지아주 전기차 전용 공장을 비롯해 국내에서도 현대차·기아 전기차 전용 공장 건설을 본격화 한다. 현대차그룹의 전기차 전용 공장 신설 및 전용 라인 전환 등을 통한 생산 능력 제고는 국가 전략기술인 전기차 분야 R&D·제조 핵심 역량까지 강화해 관련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대한민국이 미래 모빌리티 강국으로 도약하는데 초석을 다지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현대차그룹은 9일 현대차 울산공장을 방문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울산 전기차 전용 공장 신설 계획과 올해부터 국내 전기차 생산 능력을 더욱 확충함으로써 자동차 산업 미래 생태계 구축 고도화에 적극



추경호 경제부총리(앞줄 가운데)가 9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을 방문해 장재훈 사장(오른쪽) 등 관계자들과 함께 선적부두를 둘러보고 있다. /뉴시스

적으로 나선다는 구상을 설명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울산공장 1공장 전기차 생산 라인과 전기차 전용 공장 신설 부지 등을 둘러본 뒤 ‘전기차 산업 현장 간담회’에서 현대차그룹 및 자동차 부품 업계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현대차는 울산 공장에 전기차 전용 공장을 신설한다. 현대차 울산공장의 전기차 전용 공장은 1996년 아산공장 가동 이후 29년 만에 들어서는 현대차의 국내 신공장이다. 약 2조원이 신규 투자되며, 7만1000평의 건축 면적으로 올해 4분기 본격 착공에 들어가 2025년

완공될 예정이다.

전기차 전용 신공장은 빅데이터 기반의 지능형 스마트 시스템, 자동화, 친환경 생산 시설을 기반으로 다양한 차세대 미래차를 양산한다.

앞서 현대차그룹은 지난 4월 기아 화성 오토랜드에서 ‘고객 맞춤형 전기차 전용 공장’ 기공식을 개최했다. 현대차그룹이 국내 최초로 신설하는 전기차 전용 공장으로, 약 3만평의 부지에 1조원 가량이 투입된다. 2025년 하반기 양산에 돌입해 연간 최대 15만대까지 생산 능력을 확보할 계획이며, 유연생산, 저탄소, 지능화, 인간 친화를 추구하는

혁신 공장으로 국내 미래차 생산의 대표적인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오토랜드 광명도 상반기 중 내연기관 생산 시설을 전기차 전용 라인으로 변경하는 작업에 착수한다.

또 현대차그룹은 대규모 투자로 한국의 글로벌 미래 자동차 산업 혁신 허브 역할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2030년까지 총 31종의 전기차 라인업을 갖추고 국내 전기차 분야에 총 24조원을 투자함으로써 관련 기술과 시설을 고도화하는 한편, 전기차 생산량을 연간 151만대로 확대해 이중 60%인 92만대를 수출하고, 글로벌 전기차 생산량도 364만대까지 늘려 2030년 전기차 글로벌 판매 톱3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현대차그룹은 전기차 전용공장 신설과 함께 국내 전기차 부품 서플라이 체인 강화에 노력하고, 미래 자동차 산업 혁신을 선도하는 글로벌 허브 역할을 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병행한다.

전동화 가속화 등 자동차 산업 변혁기를 맞아 최근 국가 전략기술에 포함된 전기차 부품 기업들과 면밀히 협력해 내연기관 분야에서 국내 부품 기업들이 확보한 글로벌 리더십을 전동화 분야에서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함으

로써 한국 자동차 산업 발전에 기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전기차는 저장(Storage) 기능을 활용한 V2L, V2G 등 전력 수요 창출, 커넥티드, 자율주행과 접목한 다양한 신서비스와 산업 창출과도 직결된다.

이처럼 테슬라 등을 비롯해 글로벌 전기차 기업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 초기 시장 주도권을 확보하고 전동화 패권을 잡기 위해서는 전기차 공장 건설 및 유치에 국가적 차원의 투자와 지원도 필요하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회사가 추진하는 전기차 공장 및 생산 라인 확충은 전기차 산업 생태계 조성의 필수 전제 조건이자 국내 부품회사의 투자 확대와 기술 개발 가속화 등 관련 산업의 경쟁력 제고의 선순환 구조를 이끄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차그룹은 미국 조지아주에 전기차 전용공장 HMGMA(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를 짓고 있다. 애초 2025년 내 완공해 2026년 양산 본격화 계획을 2024년 내 완공해 2025년 양산 본격화로 1년 앞당겼다. 이 곳은 전기차 전용 공장으로 연간 30만대 규모의 전기차를 양산할 예정이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 에쓰오일, 새 수장과 ‘에너지 전환’ 준비 박차

안와르 알 히즈아지 CEO 선임  
‘샤힌 프로젝트’ 3兆 경제효과 기대  
27년 동안 다양한 분야 경험 쌓아

국내 4대 정유사 중의 하나인 에쓰오일이 신임 CEO를 바꾸고 샤힌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에너지 전환 시대를 준비해 나갈 전망이다.

9일 에쓰오일은 임시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개최하고 새 대표이사 CEO에 안와르 알 히즈아지(Anwar A. Al-Hejazi) 씨를 선임했다.

에쓰오일 이사회는 “안와르 알 히즈아지 CEO는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 에너지 회사 아람코의 임원을 역임하고 있는 에너지 업계의 전문가로 회사의 경영과 글로벌 성장 및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추천 사유를 밝혔다.

샤힌 프로젝트는 국내 9조2580억원을 투자해 플라스틱·합성수지 원료로 쓰이는 고부가가치 석유화학제품 생산 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에쓰오일에 따르면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동안 하루 최대 1만7000명의 일자리가 생길 전망이다. 회사 측은 프로젝트 가동 이후에는 3조원가량의 경제 효과가 날 것



안와르 알 히즈아지(Anwar A. Al-Hejazi) 에쓰오일 신임 CEO. /에쓰오일

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출신의 알 히즈아지 신임 대표는 2016년부터 아람코 아시아 재팬 대표이사를 지냈고 2018년부터 아시아 지역을 총괄하는 아람코 아시아 사장으로서 한국·중국·일본의 기업들과 전략적 합작 투자 및 협력 관계를 구축해온 인물이다. 실무 면에서도 킹과 드석유광물대에서 화학공학을 전공하고 1996년부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석유 가스 생산 시설 관리, 사업 개발, 투자 현지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갖추고 있는 인사로 평가된다.

아울러 에쓰오일이 공략하고 있는 저탄소 암모니아와 수소 분야에서도 핵심 역할을 맡고 있어 향후 에쓰오일의 행

보에도 신임 CEO의 역할이 두각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된다. 알 히즈아지 신임 대표는 사우디 아람코와 한국·일본의 10개 주요 업체 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한국과 연관된 여러 사업에도 참여했다.

에쓰오일은 CEO를 교체해 통해 다스림 ‘변화’의 동력을 마련하는 모양새다. 4년 동안 에쓰오일을 이끈 후세인 알 카타니의 역량과 성과를 기반으로 ‘샤힌 프로젝트’를 성공으로 이끌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샤힌 프로젝트는 에쓰오일이 ‘종합 석유화학 기업’으로 체질 개선에 나서는 큰 ‘도전’이다. 유가에 좌우되는 정유 사업 비중을 줄이며 유동성이 심한 유가 동향의 영향에서 벗어나겠다는 전략이기도 하다.

샤힌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는 에쓰오일 창사 이후 최대 규모인 동시에 아람코의 한국 내 투자 중 사상 최대 규모이기도 하다. 아람코는 자회사인 아람코 오버시즈 컴퍼니(AOC, Aramco Overseas Company B.V.)를 통해 에쓰오일의 지분 63.4%를 보유하고 있다.

/허정운 기자 zelkova@



‘불규칙 심장 리듬 알림’ 기능 이미지.

/삼성전자

## ‘갤럭시’ 불규칙 심장 박동 잡아낸다

갤럭시 워치5·4 시리즈 확대 적용

삼성전자의 갤럭시 워치 시리즈에 ‘불규칙 심장 리듬 알림’ 기능이 추가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삼성 헬스 모니터(Samsung Health Monitor)’ 앱의 ‘불규칙 심장 리듬 알림(IHRN, Irregular Heart Rhythm Notification)’ 기능이 미국 FDA(식품의약국)의 승인을 획득했다고 9일 밝혔다.

‘불규칙 심장 리듬 알림’ 기능은 하반

기 출시되는 갤럭시 워치 신제품에 탑재된다. 또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갤럭시 워치5와 워치4 시리즈’에도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불규칙한 심장 리듬은 갤럭시 워치의 ‘바이오 액티브 센서’를 통해 감지된다. 실제, 해당 기능을 지원하는 갤럭시 워치가 사용자의 불규칙 심장 박동을 연속적으로 감지하면 이를 이상 징후로 판단해 ‘심방세동’ 가능성이 있다는 알림 메시지를 워치 디스플레이를 통해 안내한다.

/허정운 기자

## 대한항공, 기내서 와이파이 ‘팡팡’ 터져

이르면 다음달부터 해외 여행을 앞두고 비행의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 영화나 드라마를 다운로드 받는 번거로움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이 오는 6

월 1일부터 보잉 737-8 항공기가 운항하는 국제선 노선을 시작으로 기내 와이파이 서비스를 본격 시작한다고 밝혔다. 기내 와이파이 서비스가 가능한 보

잉 737-8기종은 김포~오사카, 인천~후쿠오카, 인천~오사카 등 단거리 노선에 우선 투입 될 예정이다. 이를 시작으로 에어버스 A321neo, 보잉 787 등 다양한 기종으로 확대, 순차적으로 국제선 전 노선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양성운 기자

## LG전자, 디오스 ‘김치톡톡’ 65종 선보

LG전자 김치냉장고가 활용도를 대폭 높였다. LG전자는 11일부터 LG 디오스 김치톡톡 신제품을 순차 출시한다고 9일 밝혔다. 스탠드식 53종과 두껍식 12종 등 65종이다.

신제품은 491리터 용량 스탠드식 신제품에 ‘다목적 보관 모드’를 처음 적용했다. 잎채소와 복숭아 등 11가지 식재료 및 식품을 맞춤 보관할 수 있다.

LG전자는 김치냉장고 사용패턴을 분석한 결과 야채와 과일 등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파악하고 이 모드를 개발하게 됐다. 20대에서 30대 직원으로 운영 중인 사내 커뮤니티 ‘엠지트’에서도 김치냉장고에 바라는 추가 기능을 조사해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

/김재웅 기자 juk@



# ‘서치’ vs ‘메신저’… 네카오, 플랫폼·초거대 AI 맞대결

〈네이버·카카오〉

**네이버** 서치플랫폼 사업서 호실적  
‘하이퍼클로바X’ 기업용 확장 예정  
운영 경비 ¼로 줄여 투자 효율화

**카카오** 포털 다음 사업 매각 설  
선방한 메신저 앱 기반 사업 중점  
‘KoGPT·칼로2.0’에 공격적 투자

네이버와 카카오가 ‘서치플랫폼과 메신저플랫폼’을 내세워 시장 대결에 나선다. 네이버는 1분기 주력인 서치플랫폼 사업에서 호실적을 거둔바 있다. 카카오는 포털 비즈니스에서 무려 27%나 감소한 성과를 거뒀다. 또 카카오는 포털 ‘다음’에 대해 사내독립기업(CIC)을 오는 15일 설립하는 등 메신저플랫폼 사업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또 양사는 챗GPT와 같은 생성 AI(인공지능)를 여름이나 하반기에 공개한다. 초거대 AI를 접목한 B2B(기업용) AI 제품도 선보인다는 전략이다.

## ◆ 네이버 서치플랫폼 vs 카카오 메신저 플랫폼

네이버는 1분기 서치플랫폼 검색 부분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 0.2% 증가했다. 특히 ▲서치플랫폼 ▲커머스 ▲핀테크 ▲콘텐츠 ▲클라우드 등 5개 사업 중에서 가장 큰 매출을 기록했다. 네



최수연 네이버 대표.

/네이버

이버는 서치플랫폼이 계절적인 비수기에도 불구하고 전 분기 수준을 유지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카카오는 포털 비즈 매출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한 836억원을 기록하는 데 그쳤다. 이는 네이버 매출의 1/10에 해당하는 수치다. 카카오는 이에 따라 지난주 포털사이트 다음을 사내 CIC로 분사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카카오가 다음 사업을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설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카카오측은 선방했다. 1분기 카카오측 기반의 특비즈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2%가 늘어난 5156억원을 기록했다. 카카오는 다음 사업을 독립 기업으로 양성하는 반면, 메신저 앱 기



홍은택 카카오 대표.

/카카오

반 사업을 크게 강화하면서 경쟁력 있는 사업에 중점을 두려 하고 있다.

◆초거대 AI로 경쟁… 투자 규모 차이  
네이버와 카카오는 올해 하반기에 챗GPT에 대응할 초거대 AI를 속속 선보이면서 승부수를 띄울 예정이다. 특히 B2B용 AI 제품을 선보이면서 기업 시장 공략에도 나선다는 전략이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생성 AI를 업무에 도입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기업 수요를 공략해 B2B 시장을 선점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네이버는 올 여름 초거대 AI 모델인 ‘하이퍼클로바’를 고도화시킨 모델인 ‘하이퍼클로바X’를 출시한다. 하이퍼클로바X를 활용하면 이미지 및 음성을 이해하고 계산기, 지도 등 API(응용프

로그램 인터페이스)를 활용한 답변도 가능해진다. 또 상반기 중으로 검색에서 생성 AI 사내 베타 테스트를 진행할 계획으로 이를 준비하고 있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하이퍼클로바X를 검색은 물론 네이버 서비스 전반에 적용할 계획이다. 더 나아가 B2B 기업용 서비스를 선보일 것”이라며 “일본에서는 연내에 라인웍스, 네이버웍스 등 생산성도구에 하이퍼클로바X를 접목한 기업용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현재 네이버의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AI와 결합한 플랫폼으로 확장하는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한국형 AI 언어모델인 ‘코지피티(KoGPT) 2.0’을 하반기에 선보일 계획이다. 우선 상반기 내로 메시지 기반 AI 챗봇 서비스에 대해 테스트를 진행한 후 모델을 고도화해, 파라미터(매개변수)와 데이터 토큰 규모가 확장한 언어모델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또 AI 이미지 생성모델인 ‘칼로2.0’은 이달 내로 선보여 이미지 및 언어를 포함하는 멀티모달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홍은택 카카오 대표는 “카카오의 AI 자회사인 카카오브레인은 하반기 중으로 KoGPT 2.0의 공개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또 칼로를 통해 AI를 ‘카카오스

럽게’ 쉽고 대중적으로 녹여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카카오의 IT 서비스 자회사인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기업 및 기관을 대상으로 기업용 초거대 AI를 기반으로 한 기업용 생성 AI인 ‘카카오 iGPT’에 대한 클로즈드 베타 서비스(비공개 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네이버와 카카오의 AI 투자에 대한 방향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네이버는 AI에 대한 투자를 효율화하는 반면 카카오는 AI에 공격적인 투자를 단행한다는 전략이다.

네이버는 초거대 AI 분야에서도 운영 경비 효율화에 나서고 있다. 최수연 대표는 “챗GPT에 대해 내 놓는 AI 모델인 하이퍼클로바X는 운영 경비를 타사 수준의 ¼로 줄인 것이 특징”이라고 강조했다.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 대표는 “내부적으로 AI 분야를 더 공격적으로 해야겠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올해는 AI 투자가 정점에 이르고, 내년부터는 투자가 줄어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채윤정 기자 echo@metroseoul.co.kr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 현대차그룹, 로봇 친화형 빌딩 만든다

무인 주차·택배 로봇 기술 등을  
이시스자산운용 ‘스마트 빌딩 OS’ 연계

자동차가 주차와 충전을 스스로 하고, 로봇이 내가 일하는 자리까지 택배를 가져다주는 미래 사무실 모습이 현대자동차그룹의 로봇틱스 기술을 통해 현실이 된다. 현대차그룹은 국내 대표 대체투자 운용사인 이시스자산운용과 함께 로봇 친화형 빌딩 사업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의왕연구소에서 진행된 업무협약 체결식에는 현대차·기아 연구개발 본부장 김용화 부사장, 로봇틱스랩장 현동진 상무, 이시스자산운용 리얼에셋 부문 정석우 대표, 이철승 전무 등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력은 첨단 스마트 오피스 건물을 위한 ‘로봇틱스 토탈 솔루션’을 개발하고 미래 성장 기업들의 핵심 거점에 로봇 친화형 빌딩을 구축하기 위해



현대차·기아의 실내외 배송 로봇(왼쪽)과 모베드(MobED, 오른쪽)가 놓인 가운데 현대차·기아 연구개발본부장 김용화 부사장(앞줄 왼쪽)과 이시스자산운용 리얼에셋부문 정석우 대표(앞줄 오른쪽)가 로봇 친화형 빌딩 사업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추진됐다. 현대차그룹이 보유한 ▲실내외 배송 로봇 ▲무인 주차 로봇 ▲안내·접객 로봇 ▲전기차 충전 로봇 ▲퍼스널 모빌리티 ▲무인 택배 시스템 등의 다양한 로봇 기술들을 이시스자산운용이 개발중인 ‘스마트 빌딩 OS(Operating System)’와 연계한다.

이러한 기술로 구현된 로봇 친화형 빌딩에서는 ①전기차로 충전 ②스마트 존 하차 ③무인 주차 및 자동 충전 ④엘

리프트를 통한 출입 관리 ⑤스마트 좌석 예약 ⑥식음료 로봇 배송 ⑦무인 택배 시스템 등 비즈니스 라이프 스타일 전반에 걸친 로봇틱스 서비스가 제공된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협약체결을 통해 ‘서울 서남부권역 바이오 클러스터’와 ‘성수 크리에이티브 클러스터’ 등 국내 주요 핵심 거점에 위치한 신축 빌딩에 ‘로봇틱스 토탈 솔루션’을 적용해 나갈 예정이다.

/양성운 기자 ysw@

## LG U+, 송실대서 사이버 보안 인재 양성

채용 연계 계약 ‘정보보호학과’ 신설  
2024학년도부터 신입생 20명 선발

LG유플러스와 송실대학교가 채용 연계형 계약학과인 ‘정보보호학과’를 신설하고 사이버 보안분야에 특화된 전문인재 양성에 나선다.

LG유플러스와 송실대학교는 지난 8일 서울특별시 송실대학교 베어드홀에서 LG유플러스 황현식 대표이사, 송실대학교 장범식 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보보호학과 신설 및 운영을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가 대학교와 손을 잡고 계약학과를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LG유플러스는 지난 2월 16일 개인 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강화를 위해 발표한 ‘사이버 안전혁신안’의 일환으로 정보보호학과 설립을 추진해 왔다. LG유플러스는 이번 협약을 통해 국가 차원의 보안 전문 인재 양성에 기여하고 육성된 전문 인력을 채용함으로써 회사 자체 정보 보안 역량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송실대학교는 IT대학내 정보보호학과를 신설하고 현재 고 3 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하는 2024학년도부터 매년 신입생 20명을 선발해 사이버 보안분야 전문인재를 육성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송실대학교는 지난 달 교육부에 학과 신설 신고를 완료했다.

정보보호학과 교육과정 구성, 수업 운영 등은 기존 소프트웨어학부 교수진이 담당한다.

학생들은 정보보안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코드(Code) 관리 역량부터 ▲모바일 보안 ▲데이터 보안 ▲인공지능(AI)



LG유플러스 황현식 대표이사(사진 오른쪽)와 송실대학교 장범식 총장(사진 왼쪽)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LG유플러스

I) 보안 등 사이버 보안 영역 전반에 걸친 체계적인 이론, 실습 교육을 통해 사이버 보안 인재로 성장하게 된다.

정보보호학과는 4년제 학부 과정으로 운영되며, 입학생 전원에게는 2년간 LG유플러스가 전액 등록금은 물론 소정의 생활지원금을 지원한다. 2학년을 마친 후 별도 전형 거쳐 산학 장학생을 선발하며, 해당 학생에게는 졸업할 때까지 추가 전액 등록금 및 생활지원금, 모바일 통신 요금과 더불어 LG유플러스에 입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LG유플러스 황현식 대표(사장)은 “보안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국내 대학이 많지 않은 현실을 감안할 때 보안 및 컴퓨터 공학 분야 전문성을 보유한 송실대학교와 이번 협약이 대한민국 보안 전문 인재 양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송실대학교 장범식 총장은 “국내 최초로 기업 채용 연계형 보안 전문 인력 양성 학과를 유치하게 되어 자랑스럽고 이러한 기회를 마련해 준 LG유플러스에 감사드린다”고 화답했다.

/채윤정 기자

## 철근도 인터넷 쇼핑… ‘H코어 스토어’ 론칭

현대제철, 시범 운영 후 7월 오픈

현대제철이 철강재 내수 판매 강화 및 디지털 판매 채널 확보를 위해 전자상거래 플랫폼 ‘H코어 스토어’를 선보였다고 9일 밝혔다. H코어 스토어에서 판매하는 제품은 철근, 형강, 강관 등 건설용 강재다.

현대제철은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사

용자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세부 사안들을 보완해 오는 7월 그랜드 오픈할 계획이다. 이 플랫폼의 인터페이스는 사용자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직관적인 용어와 단순한 디자인으로 구성했다.

원하는 제품 재고가 있다면 수량을 입력하고 최저가 매칭을 통해 제품을 비교 구매할 수 있다. 원하는 공급사에서 단골 구매하거나 특가상품 확인이

가능한 ‘파트너 찾기’도 제공한다. 재고가 없는 제품을 원하는 가격으로 견적 요청한 후 입찰을 통해 구매할 수 있는 ‘견적요청’ 서비스도 있다.

이번에 현대제철이 구축한 HCOE STORE는 제조업체와 유통, 수요가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철근, 형강, 강관 등 다양한 제품을 취급하는 50여개의 파트너유통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전국 70여곳의 하치장을 통해 전국적인 판매망을 확보하게 된다.

/채윤정 기자





# GORILLA KAFFEE

170년 가업으로 이어 온 독일의 장인정신  
최상급 원두를 위한 최적의 로스팅

COFFEE IS PLEASURE. WE MAKE THE BEST OF IT. THERE IS NOTHING BETTER THAN SOMETHING GOOD.  
THAT'S WHY WE MAKE VERY GOOD COFFEE. ENJOYMENT WITHOUT FRILLS. OUR HOUSE BRAND GORILLA



# 하락장에 강력 배팅하는 서학개미… 채권 ETF도 ‘줍줍’

## 해외주식 Click

에탁결제원, 순매수 1위 종목에 SQQQ, 557억 가량 순매수  
나스닥지수 떨어질때 3배 수익

테슬라 521억 사들여 매수 2위  
초고위험 배팅에 손실 우려도

서학개미(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들이 하락장과 채권 상장 지수펀드(ETF)를 많이 사들이면서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미 증시의 불안정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행의 파산 위기가 겹치면서 시세 차익을 노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초고위험 배팅으로 인한 손실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9일 한국에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 세이브로(SEIBro)에 따르면 지난주(5월 1일~5월 8일)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은 프로셰어즈 울트

〈5월 1일~9일 서학개미 순매수 상위 종목 현황〉

/자료=한국에탁결제원

| 순위 | 종목명                                                                   | 순매수결제  |
|----|-----------------------------------------------------------------------|--------|
| 1  | PROSHARES ULTRAPRO SHORT QQQ ETF                                      | 4218달러 |
| 2  | TESLA INC                                                             | 3943달러 |
| 3  | SPDR BLOOMBERG 1-3 MONTH T-BILL ETF SPLR 005544852 US78464A6800       | 3911달러 |
| 4  | PROSHARES ULTRA BLOOMBERG NATURAL GAS ETF SPLR 007184947 US74347Y7067 | 1983달러 |
| 5  | DIREXION DAILY 20+ YEAR TREASURY BULL 3X SHS ETF                      | 1400달러 |
| 6  | BMO MICROSECTORS US BIG BANKS INDEX 3X LEVERAGED ETN                  | 1211달러 |
| 7  | ISHARES 20+ YEAR TREASURY BOND ETF                                    | 1106달러 |
| 8  | ELI LILLY & CO                                                        | 1061달러 |
| 9  | SCHWAB US DIVIDEND EQUITY ETF                                         | 9143달러 |
| 10 | BMO MICROSECTORS US BIG OIL INDEX 3X LEVERAGED ETN                    | 7934달러 |

라프로 숏 QQQ ETF(SQQQ)이다. 서학개미들은 SQQQ를 4218달러(약 557억) 가량 순매수했다.

해당 종목은 나스닥지수를 반대로 3배 추종하는 상품이다. 나스닥지수가 떨어질 때 3배 수익을 얻게 되며, 반대로 오를 경우 3배 손실을 입게 된다. 이

는 서학개미들이 미 증시를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SQQQ와 상반되는 프로셰어즈 울트라프로 QQQ ETF(TQQQ)는 2위의 매도량을 보였다. TQQQ는 나스닥100지수의 하루 수익률을 3배를 추종한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미 증

시 동향에 대해 “미 증시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부각됐음에도 개별 종목에 주목하며 보합권 등락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리콘밸리뱅크(SVB) 파산을 시작으로 유지되고 있는 미국은행 파산 위기도 매매 동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미 증시에서는 중소·지역은행 주가가 폭락과 폭등을 반복하고 있다. 등락폭이 커지면서 한국 시장에서 유행하는 ‘하파(하한가따라잡기)’ 전략이 그대로 사용돼 단기 차익을 노리는 서학개미들이 늘고 있는 모습이다. 다만 최근 레버리지 투자 선호 확대와 겹치면서 손실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학개미들이 2번째로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은 꾸준한 선택을 받고 있는 테슬라로 3943달러(약 521억)를 사들였다. 이외 상위 10개 종목 중에는 ▲BIL(SPDR BLOOMBERG 1-3 MONTH T-BILL ETF) ▲PROSHARES ULTRABLOOMBERG NATURA

L GAS ETF(천연가스 2배 추종) ▲디렉시온 테일리 20년 이상 국고채 3X SHS ETF ▲아이셰어즈 미국채 20년물 ETF(TLT) ▲SCHD(SCHWAB US DIVIDEND EQUITY ETF) 등 채권 ETF들이 포진해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 긴축 정책이 막바지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장기 국채 ETF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는 양상이다. 특히 미국 장기채권 가격 상승에 베팅하는 3배 레버리지 ETF에 대한 선호가 높아 ‘한방’을 노리는 초고위험 상품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김지만 삼성증권 연구원은 “최근 한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이 금리 인상 기조를 종료할 것이란 신호가 나오면서 개인들의 채권투자 매수세를 자극하고 있다”며 “낮아진 은행 예금 금리보다 높은 금리 매력, 또는 중장기적으로 자본 차익을 기대하는 개인 매수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 1분기 TDF 운용 연금자산 10조 돌파

금투협, TDF 출시 7주년 성과  
실적배당상품 규정 개정 영향

타깃데이트펀드(TDF)로 운용되는 연금 자산이 올해 1분기 기준 1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TDF가 지난 2016년 국내에서 연금시장을 중심으로 처음 출시된 지 7년 만에 이 같은 성장을 달성했다.

9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TDF로 운용되는 연금자산이 올해 1분기 10조 1000억원에 달했다.

문유성 금투협 연금부장은 “2020~2021년부터 퇴직연금 실적배당 상품 중 TDF 점유율이 크게 늘었다”며 “코로나 19 시대가 되면서 투자 인구 확대와 투자 인식 전환도 있지만 연금 펀드가 실적 배당 상품을 70%까지만 담을 수 있도록 했던 규정이 2018년 하반기 100%까지 담는 것으로 개정된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TDF는 근로자의 은퇴 시점을 목표로 생애주기에 따라 자산배분을 조정하는 상품으로 초기에 위험자산 비중이 높고 은퇴 시점이 가까워질수록 안전자



문유성 금융투자협회 연금부장이 9일 서울 영등포구 금투협 기자회견에서 ‘올해 1분기 타깃데이트펀드(TDF) 시장 규모·운용성과 분석’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원관희 기자

산 비중을 확대하는 글라이드 패스(Glide Path) 방식을 활용한다.

올해 1분기 기준 TDF의 누적 순자산은 11조원으로, 이 가운데 연금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92.3%로 나타났다. 퇴직연금이 73.7%, 개인연금이 18.6%였다. 또 1분기 퇴직연금 실적배당 상품 중 TDF가 차지하는 비중은 19.3%였다. 지난 2018년~2021년 기준 퇴직연금 내 TDF 적립금은 매년 2배 이상 증가해 실적배당상품으로의 머니무브를 이끌어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1분기 19개사가 TDF 상품을 출시해 운

용하고 있으며 성장세에 힘입어 매년 2~4개사가 시장에 신규 진입해 상품 다양화, 경쟁 활성화가 이뤄지고 있다.

빈티지(은퇴시점)별로는 1분기 기준 TDF 2025와 TDF 2030의 누적 순자산이 전체 빈티지 TDF의 각각 22.2%, 20.4%를 차지했다. TDF 2045는 16.8%로 뒤를 이었다. 이같은 쌍봉형 분포를 보이는 것은 은퇴시점을 고려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투자성향에 따라 빈티지를 선택한다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운용성과 측면에서 TDF는 매년 해외주식형 펀드와 국내채권형 펀드 사이의 안정적인 운용 성과를 기록했다. 증시 상승기에는 글로벌 주요지수와 동조화되어 수익을 시현하고, 증시 하락기에는 손실을 일부 방어하는 양상을 보였다.

나석진 금투협 산업시장본부장은 “장기·적립식이라는 연금투자의 속성에 TDF가 잘 부합하며, 궁극적으로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와 국민들의 연금자산 증식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원관희 기자 wkh@

## ‘라임·CFD사태’ 논란 모두 피해 ‘리스크 관리 제왕’ 미래에셋증권

CFD 도입에 신중했던 것 주효

미래에셋증권이 최근 증권가를 뒤흔든 ‘차액결제거래(CFD) 사태’의 논란 밖에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증권업계가 앞다퉀 도입했던 CFD 서비스 도입에 남달리 신중했던 것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9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은 지난해 CFD 사업을 검토했으나 거래를 당장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거시경제 변동성이 커지자 리스크 관리를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신규 레버리지 상품 도입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내부 결정에 따른 것이다.

미래에셋증권은 과거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에서 높은 신뢰도를 보여준데 이어 지난해 금융시장을 흔들었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채무보증비율도 업계 최저수준인 30%대로 유지해 리스크 관리에 강한 면모를 보여

줬다. 이번 CFD사태에서도 무풍지대의 안정성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퇴직연금, 해외사업 등에서 단연 두각을 보이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올해 1분기 퇴직연금 적립금 공시에서 20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번 1분기 퇴직연금 적립금이 1조 4000억원 증가해 증가금액, 증가율 모두 1위를 기록했다. 작년말까지 적립금 19조5000억원으로 전체업권 중 7위를 기록했던 미래에셋증권은 올해 1분기 6위에 이름을 올렸다.

최근에는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합동으로 미래에셋증권 현장을 방문해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가입과 디폴트옵션 지정을 직접 시연해 보고, 미래에셋증권 연금전문 컨설턴트를 통해 연금설계 서비스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원관희 기자

## GS건설 “검단 공사현장 붕괴사고 사과”

GS건설이 최근 인천 검단신도시의 한 신축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와 관련해 공식 사과했다.

GS건설은 9일 “공식적인 조사위원회 조사와 별도로 자체 조사를 병행해 진행하는 과정에서 초음파촬영을 통해 설계와 다르게 시공된 것으로 추정되는 일부 부분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GS건설은 “시공사로서 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깊이 사과 드린다”면서 “이러한 사실을 즉시 사고조사위원회에 알리고 향후 조사 과정에서도 철저하고 투명하게 협조할 것이며 건물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

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사안은 공기 단축은 없고, 원가 감소도 최대 1000만원 인팍으로 단순 과실이 원인으로 자체 조사됐지만, 그간 시공사로써 안전과 철저한 품질 관리를 자부해 온 입장에서 있을 수 없는 과오”라고 덧붙였다.

GS건설은 “점점이 실시되는 3개월간 최고경영자(CEO)인 임병용 부회장과 최고안전책임자(CSO)인 우무현 사장이 직접 조사 대상 83개 현장을 포함해 전국 110개 모든 현장을 순회하며 현장 안전 점검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대환 기자 kdh@

## 전세보증금 제때 못 받을 가능성 커지나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신청 59.5%↑  
부동산 강제경매 느는데 낙찰률 하락

최근 집값이 전세보증금보다 낮아지는 ‘강통주책’이 늘면서 부동산 임의·강제경매 신청 사례가 증가하는 가운데 경매 낙찰률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낙찰률이 떨어지면서 경매를 진행해도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 우려가 나온다.

9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

난달 전국에서 신청된 부동산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는 8452건으로, 지난 1월(6622건) 대비 27.6%(1830건) 증가했다. 지난해 4월(5299건)과 비교해 보면 59.5%(3153건)나 늘었다.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의 경우 지난달 전국에서 신청된 부동산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는 5074건으로, 3개월 만에 2.4%(120건) 증가했다.

업계에서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늘

어나자, 임의·강제경매 신청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한다.

한국부동산원의 ‘임대차 시장 사이렌’에 따르면 지난 3월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 보증 사고 금액은 약 3199억원으로 지난 2월(2542억원) 대비 25.8%(657억원) 늘었다. 같은 기간 사고 건수는 1121건에서 1385건으로 23.6%(264건) 증가했다. 임의·강제경매 신청 사례가 증가하면서 경매 매물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낙찰률은 여전히 30%대 머물고 있어 세입자들이 경매를 진행해도 전세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대환 기자



# 식품업, 가격인상·해외사업 ‘덕’… 1분기 실적 방어 ‘성공’

주요 국인 美 매출 약 30% 늘어  
하반기 원재료 부담 안정화 전망  
라면3사, 고물가 장기화에 판매량 ↑  
2분기 댄 주력 제품 따라 희비 갈려

지난해부터 원가 인상 부담과 내수 소비 부진으로 어려운 경영환경을 이어오고 있는 식품업계가 1분기 실적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해외 사업으로 호실적을 거두거나 가격 인상 효과가 반영돼 대다수 기업이 실적 방어에 성공했지만, 내수 사업 분위기는 침울하다.

CJ제일제당은 올해 1분기 매출은 4조 4081억원, 영업이익은 1504억원을 기록했다. CJ대한통운은 제외한 실적이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식품사업 부문은 2조 7596억원의 매출과 1340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원가 부담이 지속됐고,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판매량 감소가 겹치며 수익성이 줄어들었다.

다만, 해외 식품사업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15%, 50% 늘었다. 전체 식품 사업 매출에서 해외가 차지하는 비중도 49%로 확대됐다. 특히 미국을 비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서 한 시민이 라면을 고르고 있다.

/뉴시스

롯한 주요 사업 국가에서 비비고 글로벌 전략제품(GSP)을 중심으로 견조한 성장을 이어갔고, 비용 구조·생산성 개선 등을 통해 수익성도 개선됐다.

주요 국가인 미국은 매출이 약 30% 늘었으며, 유럽에서도 41% 매출이 늘며 K-푸드 영토확장을 이어갔다.

바이오·FNT(푸드·뉴트리션 테크) 사업부문은 좋지 않은 시장 상황에도 불구하고 고수의 스페셜티(발린, 알지닌, 이소류신, 히스티딘, 테이스트엔리치, 플레이버엔리치, 시트룰린) 제품의 비중을 늘리며 사업 포트폴리오를 한층

고도화했다. 양 부문 합산 기준 스페셜티 품목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했고,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절반을 넘었다.

바이오사업부문은 매출 8174억원, 영업이익 128억원을 기록했으며, FNT 사업부문은 시장의 일시적인 수요 정체로 1745억원의 매출과 503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지난해 롯데푸드를 흡수합병한 롯데웰푸드(구 롯데제과)는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전년 대비 개선하며 좋은 출발 신호탄을 쏘아올렸다. 가격 인상과 해

외 사업 호실적이 성장을 견인했다.

롯데웰푸드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1% 늘어난 9596억원을 기록했다. 제과 부문이 3922억 원에서 4104억원으로 4.6% 성장했고 식품 부문은 3601억원에서 3671억원으로 1.9% 늘었다. 해외사업은 18.8% 증가한 1909억원을 기록하며 큰 폭의 성장을 이뤘다.

전체 영업이익은 136억원에서 186억원으로 36.5% 늘어난 가운데, 제과 부문은 89억원에서 158억원으로, 해외 부문은 51억원에서 89억원으로 각각 77.7%, 74.8% 성장했다. 식품 부문은 원가 부담으로 인해 적자전환했다. 매출은 1.9% 늘어나는데 그쳤으며, 영업이익은 지난해 1분기 30억원에서 올해 손실액 29억원을 기록했다.

롯데웰푸드는 향후 해외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사측은 “메가 브랜드로 입지를 공고히 하는 ‘초코파이’와 ‘빼빼로’ 등 제품을 앞세워 매출 비중을 늘릴 계획”이라며 “계다가 하반기에는 원재료 부담이 안정화에 접어들어 수익성이 좀 더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

다”고 말했다.

동원F&B는 올해 1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34.72% 증가한 434억3600만원 기록했다. 매출액은 전년 대비 14.01% 증가한 1조808억원이다. 제품 가격을 인상하면서 수익 개선에 성공한 것으로 분석된다.

증권가는 농심과 오뚜기, 삼양식품 ‘라면 3사’의 실적도 좋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년보다 소비자 판매 가격을 10~15% 인상한 효과가 반영되기 때문이다. 또 고물가 장기화로 국내 라면 판매량이 늘었고, 해외에서도 라면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는 상태다. 게다가 라면의 주재료인 소맥과 팜유 가격은 지난 3월에 전년 대비 30% 하락하며 안정세로 돌아섰다.

업계 관계자는 “식품 회사들 대부분이 1분기 실적 방어에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며 “2분기에는 주력 제품에 따라 희비가 갈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라면 회사들을 제외한 식품기업들은 해외 사업과 포트폴리오 다각화에 신경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 소진공, 전통시장에 ‘어린이 고객’ 모신다

부산광역시교육청 등과 업무협약 체결  
어린이 10만명 유치 전국으로 확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올해 전국 전통시장으로 어린이 고객 10만명을 유치한다.

장보기, 스탬프 팸리 행사, 그림 공모전 등 전통시장 체험행사를 다양하게 마련해 어린이들의 발길을 전통시장으로 옮겨 활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소진공은 지난 8일 부산광역시 교육청, 부산광역시 상인연합회와 부산교육청에서 어린이 경제교육 향상과 소상공인·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를 통해 소진공이 추진하는 ‘특성화시장’과 ‘공동마케팅지원 시장’에 부산지역 유치원·초등학교를 매칭해 어린이 장보기, 김장담그기 행사와 스탬프 팸리 행사를 펼친다.

부산에서 장보기(5월)와 김장담그기



(왼쪽부터)소진공 박성호 이사장, 부산교육청 하윤수 교육감, 부산상인연합회 권택준 회장이 지난 8일 부산교육청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촬영을 하고 있다. /소진공

(11월) 행사에 참여하는 시장은 44곳에 이르며, 유치원·초등학교는 148곳, 참여 학생 수는 7800여명이다.

이달 15일부터 오는 6월30일까지 약 두 달간 진행하는 스탬프 팸리 행사는 어린이 및 가족단위로 61곳 전통시장 중 1곳을 방문해 온누리 상품권으로 물건을 구매한 후 스탬프 인증을 받으면 경품추첨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이는 어린이들에게는 실물경제를 교

육하고 지역 상권엔 생동감을 불어넣을 수 있을 전망이다.

소진공은 또 직접 현장을 찾지 못하는 고객을 위해 어린이 전통시장 장보기 체험활동과 스탬프 팸리 행사를 VR 카메라로 촬영해 스케치 영상으로 제작하고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은 “오늘날에는 부모님들이 자녀와 함께 대형 마트에서 장을 보는 것이 일상화돼 있다”면서 “이번 장보기 행사를 통해 어린이들이 직접 전통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함께 가격 흥정도 하면서 살아있는 경제 교육을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소진공은 부산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어린이 체험행사를 펼친다. 이를 위해 ▲어린이 그림대회 ▲전통시장 사진전 ▲체험후기 공모 ▲어린이 장기자랑 등 다양한 체험행사를 진행한다.

/김승호 기자 bada@

## 사람인 듯 아닌 듯… ‘버추얼 휴먼’ 시대

AI아나운서·AI도지사 등 역할 수행

버추얼 휴먼 기술이 우리 일상 속 깊숙이 자리 잡았다.

피부 솜털과 잔머리, 모공까지 구현한 사실적인 그래픽은 탄성이 절로 나온다. 버추얼 아이돌의 데뷔곡 뮤직비디오 조회 수가 2천만이 넘는다면, 라이브 쇼핑에 쇼호스트로 등장해 명품 가방을 25분 만에 완판시키기도 한다. 나아가 AI아나운서, AI도지사, AI교수 등 바쁜 사람을 대신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최근 버추얼 휴먼은 사람과 똑같은 모습을 지니고 있어 사람인지 가상인간인지 구분조차 어렵다는 평가가 다수다. 이제는 최대한 인간과 유사한 모습을 구현하고자 하는 시각적 완성도를 넘어, 인공지능(AI)을 비롯한 다양한 첨단 기술과의 융복합을 통해 활동 영역을 본격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버추얼 휴먼에 접목되는 융복합 기술의 종류는 다양하다. 사람의 대화를 이해하고 실시간으로 사용자와 소통 가능한 ‘대화형AI’, 현실과 가상을 연결해 활동 무대를 넓히는 ‘확장현실(XR)’, AI 기반의 새로운 게임 경험을 제공하는 ‘플레이어형AI’ 등이 대표적이다. 이렇듯 융복합 기술과 버추얼 휴먼을 접목하



/딥브레인

는 과감한 시도를 통해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분주하다.

먼저 인공지능 전문 기업 딥브레인AI는 음성 합성 기술(TTS)을 적용해 실시간 대화가 가능한 ‘대화형 AI’를 선보이며, 버추얼 휴먼의 활용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음성 및 영상 합성, 자연어 처리(NLP), 음성 인식 기술(STT) 등 다양한 AI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AI 휴먼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어 대화형 AI 분야서 경쟁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자이언트스텝의 버추얼 휴먼 ‘이슬’은 풀3D와 리얼타임 엔진으로만 구현된다. 이는, 딥페이크 방식에 비해 새로운 얼굴 제작이 가능하고, 3D 데이터를 활용하기 때문에 비교적 다양한 앵글에서 자연스러운 연출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이슬은 네이버 쇼핑 라이브와 유튜브 및 방송 출연 등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최빛나 기자 vitna@

## 대한상의 “국내 ESG평가 신뢰도 높여야”

제3차 상의 ESG 아젠다그룹 회의

국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평가사의 신뢰성 재고를 위해 평가정보 공개를 강화하는 등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9일 오전 ‘제3차 대한상의 ESG 아젠다그룹 회의’를 개최하고 글로벌 ESG 확산 대응, ESG평가 등 최근 ESG 이슈에 대한 경제계의 견과 정책지원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의 ESG 아젠다그룹은 ESG에 대한 경제계 대응 역량 강

화, 대정부 정책 건의, 민관 소통을 위해 설립됐다. 현재 국내 주요 그룹과 은행 등 19개 사가 가입해 있다.

이날 회의에는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이승원 기재부 미래전략국장, 윤태수 기재부 지속가능경제지원팀장, 김동수 김앤장 ESG경영연구소 소장, 이준희 법무법인 지평 그룹장 및 국내 20대 그룹과 주요 은행 ESG 담당임원 등 20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발제를 맡은 김동수 김앤장 ESG경영연구소장은 “국내의 경우 ESG 평가사의 신뢰성, 평가 기준의 객관성, 이해

관계상충 문제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지속되는 모습”이라며 “ESG 평가정보 공개를 강화하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평가사는 공적자금 집행 참여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평가사의 적극적인 정보공개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태수 기획재정부 지속가능경제지원팀장은 “최근에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ESG 공시 국제표준 제정, EU의 지속가능한 기업실사지침 마련,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글로벌 ESG 제도화 움직임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정부는 민간중심 ESG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지원·인프라 구축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최빛나 기자

## 시몬스, N32 폼 매트리스 할인 프로모션

시몬스가 가정의 달을 맞아 전국 N32 단독 매장에서 대국민 안전확보 프로젝트를 일환으로 ‘N32 패밀리 프로모션’을 실시한다. 9일 시몬스 침대에 따르면 이번 N32 패밀리 프로모션 기간 동안 고객들이 가족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N32 폼 매트리스로 교체시 풍성한 혜택을 선사한다.

▲N32 폼 매트리스 및 N32 레귤러 토퍼 최대 30% 이상 할인 ▲신제품 프레임과 룸세트 등이 대표적이다.

/김승호 기자



# 후배 이끄는 여성 CEO... '미래여성경제인육성사업' 본격화

중기부·여경협, 16개 校와 선포식  
480명 선발... 예산 약 9억 새 편성  
특강·멘토링·현장 체험 등 제공  
우수 학생에 장학금·후속지원 예정

미래 여성 최고경영자(CEO)들을 적극 육성하기 위해 재계·정부·정치권이 뿔뿔 뭉쳤다.

여성의 경제 참여를 촉진하고 창업·취업을 돕기 위해 '미래여성경제인육성사업'도 본격 시작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여경협)에 따르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미래여성경제인육성사업에 참여하는 16개 학교와 여경협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당신의 잠재력을 펼쳐라'라는 주제로 비전 선포식을 가졌다.

대학에선 수원여대, 광주여대가, 여성 특성화고에선 예림디자인고, 성암국제무역고, 대일관광고, 매향여자정보고, 안양문화고, 인천미래생활고, 대전 신일여자고, 대전여자상고, 천안여상,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미래여성경제인육성사업에 참여하는 16개 학교와 여경협 간 여성경제인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당신의 잠재력을 펼쳐라'라는 주제로 비전 선포식을 가졌다.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여경협

청주여상, 전남여상, 광주여상, 목포여상, 학산고가 참여한다.

올해 처음 시작해 총 480명을 선발하는 미래여성경제인육성사업은 성공한 선배 여성 CEO들이 여학생을 대상으로 ▲여성CEO 특강 ▲실전 창업 멘토링 ▲여성기업 현장 체험 ▲미래여성경제인 워크숍 ▲글로벌 비즈니스탐방 등으로 꾸며진다.

이정환 여경협회장은 "이번 사업은 선배 여성 CEO들이 그동안 겪었던 수많은 어려움과 시행착오를 후배들이 반

복해 겪지 않도록 도와야 한다는 공감대로부터 시작했다"면서 "사업을 통해 우리 선배들은 후배들에게 이론을 뛰어넘는 생생한 현장과 현실을 알려주고, 어려움이 있어도 극복해나갈 수 있는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회장은 "우리 후배들이 '무한한 잠재력'을 터트려 사회에 나가서 마음껏 역량을 펼치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날 비전 선포식에선 여성CEO 대표, 대학생 대표, 고등학생 대

표가 참여해 '비전 선언문'도 낭독했다. CEO들은 "선배 여성 기업인으로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로 후배들의 잠재력을 깨워 당당한 여성경제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건실한 토대를 조성하겠다"고 언급했다.

미래 CEO들은 "미래의 여성경제인으로서 적극적으로 배우고 익혀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미래여성경제인육성사업은 중기부가 전방위로 힘을 보태 올해 9억원에 가

## 돈 주면 파양 가능한 신종펫샵... 불공정약관 시정

공정위, '파양·입소각서' 심사해  
이전 소유자 관여 금지 조항 등 삭제  
파양동물·비용 반환 요구 가능해져

반려동물 파양·분양 서비스를 하는 신종펫샵의 파양동물 반환이나 파양비용 환불 금지 조항 등이 위법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아이조아 서울점의 계약서인 '파양·입소각서'를 심사해 파양동물의 입소 후 '반환·환불 불가', '최고절차 없는 계약해제', '과도한 위약금 조항' 등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자신의 반려동물을 키울 수 없는 고객들이 이용하는 신종펫샵이 확산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



유기동물보호소에 있는 고양이. /유투이미지

부에 따르면, 국내 성인 5000명 중 반려동물 사육비율은 25.4%로 4명 중 1명 꼴로 반려동물을 기른다. 이 가운데 22.1%는 사육을 포기하거나 파양을 고려한 경험이 있고, 그 이유는 '물건훼손·짓음 등 동물의 행동문제'가 28.8%

로 가장 많았고, 이어 '예산보다 지출이 많음'(26%), '이사·취업 등 여건 변화'(17.1%) 순이다.

반려동물의 새 주인을 곧바로 찾을 수 없는 주인들은, 유기나 안락사 보다는 해당 동물을 맡아 보호·관리를 하는 사업자를 찾게 되는데, 신종펫샵은 이런 고객들로부터 반려동물 소유권을 이전받아 비용을 받는다. 비용은 새 주인을 만날 때까지 소요되는 동물 관리비와 중개수수료 성격으로 동물의 성질이나 분양시점 등에 따라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에 달한다.

공정위는 소위 '안락사 없는 요양보호'라는 명목으로 파양된 반려동물을 맡아 관리해주는 사업자의 '파양·입소각서'가 약관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에

불공정성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해 달라는 심사청구를 접수해 심사에 착수했다. 심사과정에서 사업자는 불공정약관으로 판단된 조항을 스스로 시정했다.

우선 '파양 후 이전 소유자의 관여를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사업자가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객이 파양동물과 파양비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업자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고객이 단순 변심으로 계약을 해제하려고 하는 경우엔 사업자와 협의할 수 있게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고객이 반려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하고 파양비를 지불하면 사업자는 해당 동물을 새 주인에게 입양보내거나 보호·관리하는 의무를 부담한다"며 "고객 입장에서 사업자가 보

호·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양정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고객이 파양비 분할납부를 연체할 경우 계약이 즉시 해제돼 사업자의 의무가 중단되고 고객은 파양동물을 즉시 데려가야 했으나, 앞으로는 미지급 파양비에 대해 14일 이내 납입할 것을 최고하도록 하고, 사업자의 채무 중단 및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삭제했다.

또, 고객이 파양비 분할납부 지연 시 위약금으로 2000만원을 배상하도록 하는 조항은 손해배상액으로 연 6% 이하를 규정하도록 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적발된 불공정약관이 아이조아의 서울 가맹점 약관이지만, 해당 가맹점의 가맹본부에서 작성한 약관인 만큼, 가맹본부와 소속 가맹사업자들에게도 불공정약관을 자율적으로 시정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 중기중앙회, 포스코와 中企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사업비 60% 이내... 30개社 모집

중소기업중앙회가 포스코와 함께 '2023년 대·중소 상생형 포스코 스마트공장 사업' 참여기업 모집한다.

9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2019년 처음 시작해 지난해까지 419개사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도운 이 사업은 올해 30개사를 추가로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포스코는 관련 사업을 위해 2019년부터 매년 각 20억원씩 지원하고 있다. 중기중앙회는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및 포스코와 함께 사업 운영관리를 총괄하고 있다.

신청은 포스코와 거래관계 없는 기업도 신청할 수 있다. 모집기간은 10월부터 이달 23일까지다. 참여기업은 지원

유형에 따라 사업비의 60% 이내에서 6000만~2억4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기초' 수준의 정보통신기술(ICT) 연계 간이지동화 또는 간이 생산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엔 최대 2000만원의 사업비를 100%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기초' 과제 지원을 지속하고, 정부의 스마트공장 고도화 정책 방향에 맞춰 '고도화' 과제를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업 참여기업에게는 QSS(Quick Six Sigma) 컨설팅을 통한 포스코 혁신방법론 전수와 동반성장지원단을 활용한 현장방문과 지도활동도 지원할 예정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포스코의

중소·중견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은 대·중기 상생의 모범사례로, 중소기업 혁신과 성장의 발판으로서 기여하고 있다"며 "중기중앙회는 정부와 대기업이 함께하는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활력 제고와 제조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대·중소 상생형 포스코 스마트공장 사업'에 참여나 기업은 스마트공장 구축 전과 비교해 ▲품질 향상 29.7% ▲납기 단축 20.3% ▲생산성 증가 17.5% 등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 관련 세부 내용 및 참여 방법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관련 문의는 스마트산업실로 하면 된다. /김승호 기자

## 한국항공公, UAM 핵심기술 교류 워크숍

美 조비에이션社와 협력 방안 논의

한국항공공사가 '2025년 UAM 상용화' 국정과제 달성을 위해 세계 최고의 UAM 항공기 기술력을 보유한 美 조비에이션(Joby Aviation)사와 도심항공교통(UAM) 핵심기술 교류워크숍을 8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 43년간 쌓아온 공항과 항공관제시스템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UAM이착륙장(버티포트)과 교통관리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특히 양사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관련 핵심기술의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조비의 그렉 볼스 대정부 협력분야 총괄임원, 에릭 앨리

슨 서비스 분야 총괄임원 등이 참석했으며, 공사에서는 윤형중 사장과 경영진 등이 참여했다.

양측은 공사에서 추진 중인 UAM이착륙장·교통관리시스템과 조비 기술의 상호 연동성을 점검하고 상용화 일정 등을 공유하였으며, 김포공항 UAM 허브 이착륙장 준비현황을 확인하고 예정지 현장 답사를 진행하는 등 UAM 상용화를 위해 서로 긴밀히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윤형중 공사 사장은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한 조비와 기술·인증·인프라 구축 정보공유 등 전략적 파트너십을 유지하면서 2025년 UAM 상용화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허정원 기자 zelkova@



우아하고 세련된 직사각형 케이스에  
담긴새로운 작품 레이몬드 웨일  
토크타컬렉션을 만나보세요.



**RAYMOND WEIL**  
GENEVE

[www.raymondweil-korea.com](http://www.raymondweil-korea.com)  
레이몬드웨일 부티크 청담 1544-75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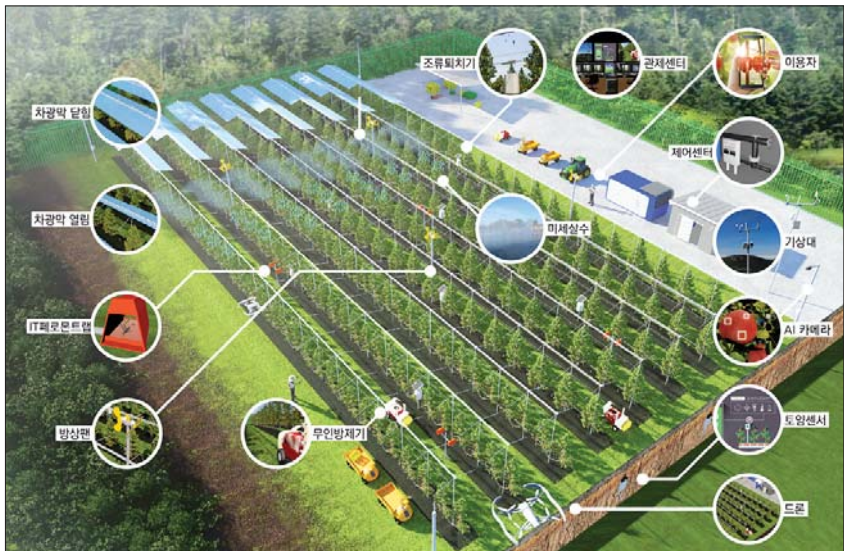
# 경북도, 전국 최초 ‘사과 스마트팜’ 모델 공개

시설원에서 노지품목 영역 확장  
최첨단 ICT 과학기술 설치·활용  
성과분석 결과, 비용↓생산성↑

경북도 이철우 경북도지사, 권기창 안동시장, 유관기관, 지역농업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안동시 임하면 오대리에 1ha 규모로 시범 조성된 ‘전국최초 사과 스마트 팜’ 모델을 9일공개했다.

디지털 기반 첨단산업으로 농업 대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경북도의 또 하나의 야심작이다. 농촌 인구 감소, 고령화 등으로 노동수급 여건은 갈수록 악화되고, 기후변화로 인한 재배적지 북상, 지속적 시장개방 압박, 농자재 값 상승 등으로 사과 산업은 위기를 맞고 있다. 경북도는 노동과 경험에 의존하는 관행 농업으로는 그 성장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 아래 사과 산업의 스마트화를 추진하게 됐다.

아울러 그동안 스마트 농업이 딸기, 토마토 등 시설원에 품목에 편중해 추진됐다는 점에서 이번에 선보인 사과 스마트 팜은 실내온실을 벗어나 농지면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노동력이 훨씬 많이 요구되는 노지품목으로까지 그 영역을 확장시키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과 스마트팜 조감도.

이날 공개된 사과 스마트 팜은 총 61ha 규모의 국가공모사업인 ‘안동사과 노지스마트농업시범사업’의 단위사업으로 별도 조성된 표준형 모델이다.

1ha의 면적에 최첨단 ICT 과학기술을 활용한 점적 관수·관비 자동화 시설, 에어포그, CCTV 등 생육관리 시스템과 미세살수시설, 자동 방조망, 열상 방상팬 등 재해방지시설, 병충해 예찰 장비인 IT페로몬 트랩, AI 카메라 등 다양한 첨단시설과 장비가 설치돼 있다.

데이터 센터와 과원이 인터넷으로 연결돼 생육정보, 기상데이터, 병해

충자료가 AI를 기반으로 수집·분석·가공되고, 다시 농가로 제공되는 환류 시스템도 갖춰져 있다.

데이터 센터에 설치된 관제시스템으로 과원에 설치된 각종 시설과 장비들을 가동시킬 수 있고, 드론 등 첨단장비를 동원한 농약살포, 병해충 예찰 등의 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다.

경북도는 사과 스마트 팜 표준형 모델 등 ‘안동사과 노지스마트농업시범사업’의 성과분석 결과, 생산성과 상품화율은 각각 약 25%와 10% 증가하고, 노동시간(관수·관비)과 병충해 피해는 약 54와 50% 정도 감

소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당초 기대대로 비용은 줄고 생산성은 증가했다는 판단이다.

경북도는 성과가 검증된 만큼 사과 스마트 팜의 빠른 확산을 위해 농민사관학교와 한국미래농업연구원을 통한 농가교육 및 컨설팅을 실시하고, ICT 융복합 시설장비 설치 및 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의성군 사곡면 일원에 82ha 규모로 조성될 마늘 스마트단지 등 노지스마트 농업 적용 품목을 점진적으로 확대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안동사과 노지스마트농업 시범사업은 전국 최초로 선정된 국비사업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245억원을 투자해 61.5ha에 이르는 스마트 생산·유통단지를 조성하고 데이터 센터 건립, 실증단지 설치 등 전국에서 유일한 노지분야(사과) 스마트 농업 거점 모델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노동집약적 전통농업으로는 경영효율성을 보장할 수 없는 만큼, 4차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첨단과학기술을 바탕으로 산업경쟁력을 끌어올려야 된다”라며 농업대전환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안동(경북)=장영우 기자  
ycyw57@metroseoul.co.kr

## 지역 이모저모

### 광양시

#### 백운산 ‘숲속 감동책방’ 개장

광양시가 백운산자연휴양림 내 북카페형편의 공간인 ‘숲속 감동책방’을 오는 12일부터 개장한다.

‘숲속 감동책방’은 과거 야외 물놀이장 운영 당시 매점으로 활용되다가 이후 수년간 방치돼 산림 미관을 저해해 오던 시설물을 철거한 뒤 해당 부지를 정비해 건립됐다.

‘숲속 감동책방’은 면적 20㎡ 규모로 창호 비율을 높여 채광과 주변 경관 조망에 유리한 구조로, 실내에는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기증한 중고 도서 7백 권을 포함한 총 도서 1천 권이 비치됐다. 실외에는 잔디정원과 원목 테이블을 배치해 열린 문화공간으로 조성했다.

/광양(전남)=전정신 기자 spirit@

### 대전시

#### 관광도 하는 이색 ‘힐링캠프’

대전시는 6월 10일부터 1박 2일 간 동구상소동 오도캠핑장에서 주요 관광지를 돌아보고, 가족과 캠핑도 하는 ‘2023 풀캠대전 힐링캠프’를 연다.

캠핑장에 가기 전 대전의 주요 관광지를 돌아보며 주어진 미션을 하는 스탬프투어, 지역 전통시장에서 캠핑장 먹거리를 구입하는 전통시장 장보기 미션 등이 진행된다.

캠핑장에서는 먹거리로 요리해 최고의 요리사를 뽑는 캠핑 요리대회와 대전관광 퀴즈쇼 등도 펼쳐진다. 가족 장기자랑, 힐링음악회 등 가족과 함께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대전=원승일 기자 won@

### 부산시

#### ‘광안리어방축제’ 개최

부산 수영구는 부산 유일의 대한민국 문화관광축제 ‘광안리어방축제’를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광안리 해변과 수영사적공원 일원에서 개최한다.

구는 먼저 축제의 모든 먹거리 부스에서 환경 보호를 위해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기만 사용하기로 했다. 또 옛 좌수영여방에서 어민들이 햇불을 밝히고 야간 고기잡이를 했던 모습을 재현한 ‘진두여화’에서 햇불(휘발유 사용) 대신 LED 전구로 전면 교체해 어선 퍼포먼스를 펼치며, 환경 유튜브와 광안리 비치코밍(해변환경정화) 활동도 시행하는 등 친환경 축제로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부산=심재만 기자 metrobusan4@

# 경남도, 남해 연안 6곳 방사능 검사 강화

## 보건환경연구원, 日 오염수 방류에 유통 수산물 자체 조사 2배 확대

경남도보건환경연구원은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방사능 오염을 사전에 파악하고, 도민 건강 보호를 위해 남해 연안의 유통 수산물과 해수, 갯벌 등을 대상으로 방사능 검사를 강화한다.

2022년에는 남해 연안 5개 지역(창원시 진해구, 통영시, 사천시, 거제시, 남해군)의 해수와 갯벌을 매달 조사했고, 올해는 고성군을 추가해 6개 지역으로 검사를 확대했다. 또 남해 연안의 유통 수산물 자체 조사를

2022년 기준 2배(100건)로 확대 검사함으로써 방사능 오염 감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연구원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유통 수산물 89건과 남해 연안 6개 지역(창원시 진해구, 통영시, 사천시, 거제시, 남해군, 고성군)에서 채취한 해수와 갯벌 48건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수산물에서는 방사성 요오드(131I), 세슘(134Cs, 137Cs) 등의 인공 핵종은 검출되지 않았고 과거 해의 핵 실험 영향으로 추정되는 세슘(137Cs)이 해수(불검출~0.00210 Bq/L)와 갯벌(불검출~1.76 Bq/kg-dry)에서 검출됐다. 다만 이는 평상 범

위(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2017년~2021년) 이내로 후쿠시마 원전에 의한 영향은 없었다.

또 고리원전 영향과 도내 방사능 분포 경향 파악을 위해 농산물과 가공식품, 먹는 물(정수와 원수), 대기(공기와 빗물), 토양 등 162건을 검사한 결과, 토양(불검출~21.4 Bq/kg-dry)에서만 세슘(137Cs)이 검출됐지만 평상 범위(도내 등산로, 2015년~2017년) 이내였다.

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방사능 검사 체계를 구축했다.

/경남=김영찬 기자 metrobusan3@

### 고흥시

#### 거금대교, 관광 명소 된다

고흥군은 금산면에 거금대교에 새로운 매력을 더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거금대교 복층 탐방로 정비 사업’을 추진한다.

국내 최초로 자전거·보행자 도로(1층)와 차도(2층)인 복합교량으로 지난 2011년 12월에 개통된 거금대교가 트릭아트와 자전거도로 정비 등을 통해 다도해의 비경을 복층다리에서 체험할 수 있는 매력적인 관광자원으로 탈바꿈한다.

올해 6월에 착수해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고흥(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 전남도 시장개척단, 1000만 달러 수출계약

태국·베트남 파견 15개社 성과

전라남도는 세계경기 침체 위기 극복과 수출선 다변화를 위해 6일까지 7년간 태국 방콕과 베트남 하노이에 파견한 시장개척단이 총 1000만 달러 규모 수출계약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재)전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과 전남도가 파견한 전남 수출유망 15개 기업은 구매자 발굴 가능성, 수출 준비도 등을 고려해 선정됐다. 지난 한 달 동안 잠재 구매자 발굴과 매칭을 3회 이상 반복하면서 수출 거래 성립 가능성을 높였다.

시장개척단에 참여한 15개 기업은

76개 현지 구매자와 1대1 상담을 통해 5건 630만 달러 수출계약과 15건 395만 달러 수출 업무협약(MOU)을 하고 658만 달러 수출 상담을 추진했다.

2일 태국 방콕 수출상담회에서 (주)해농이 김, 미역 200만 달러 상당 수출계약을 했다. 또 해농이 추가로 50만 달러, (주)에스에프시가 비이온계면활성제 10만 달러, (주)에이치비가 화물운반차 3만 달러 등 총 63만 달러 수출 업무협약을 했다.

4일 베트남 하노이 수출상담회에서 선 완도만이 2건 220만 달러 상당의 전복과 해조류, 완도물산이 200만 달러 조미김, (주)푸드파파가 10만 달러



태국·베트남 시장개척단 수출상담. /전남도

상당의 떡류 수출계약을 했다.

이밖에도 완도고금바다(주)가 매생이 전복죽 2만 달러, 완도물산이 조미김 90만 달러, 푸드파파가 떡류 20만 달러, (유)호인이 네일 제품 10만 달러, 봉강친환경영농조합법인이 유기질 비료 30만 달러, 맑고맑고따뜻한 협동조합이 유자주스 10만 달러 등 총 332만 달러 수출협약을 했다.

/전남=양수영 기자

### 고성군

#### 청년들 위한 페스티벌 열어

고성군이 오는 13일 고성청년센터 일원에서 고성군 청년들을 위한 첫 페스티벌 ‘고성청년! 문화와 예술에 놀다’를 개최한다.

군은 청년축제인 만큼 색다른 아이템으로 청년들의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공연, 편안하고 자유로운 분위기를 연출할 돗자리관람석, 감성 부스로 가득 찬 부스거리 등 청년 감성 축제로 만들고자 다양한 시도를 더했다.

감성 부스에는 고성군의 청년동아리, 청년 농부 등이 직접 참여해 먹거리와 고성 청년 농부가 키운 고성특산물, 청년 예술가가 직접 만든 공예품 등을 판매하고, 청년 창업가의 각종 홍보부스가 열린다.

/고성(경남)=이도식 기자



# 올 봄 평균기온 3℃ 상승… 유통가 ‘여름맞이’ 앞당졌다

**롯데온 온앤더뷰티 행사 앞당겨  
3~4월 ‘선케어’ 매출 50% 늘어  
CJ온스타일 여름침구류 편성 확대  
인터파크 해외여행 상품 순차특가**

여느 해보다 빨랐던 빗꽃 만개 만큼 유통가의 여름맞이도 앞당겨졌다.

올해는 평년보다 더운 봄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3월부터 8일까지 서울 기준 평균 기온은 12.32도, 평균 최고 기온은 18.0도다. 같은 기간 지난 10년 평년기온은 9.45도로, 올해 봄은 평년보다 3도 가량 더운 날씨로 지난해(평균 기온 11.77도)보다도 덩다.

더운 날씨에도 팬데믹이 끝나 특히 외출 수요가 높은 만큼 유통가는 관련 상품과 기획전을 서둘러 준비하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온은 온앤더뷰티의 여름 행사를 전년 대비 한 달여 앞당겨 8일부터 14일까지 진행한다. 올해 이상고온으로 화장품 브랜드들이 여름 신상품을 서둘러 낸 점과 여름 뷰티 상품 매출이 빠르게 오르는 점을 감안한 결정이다.



한봄같은 날씨가 이어진 3월을 지나 4,5월부터 이른 더위가 찾아오면서 유통가의 여름맞이도 한 달여 빨라졌다. 사진은 서울 낮 최고기온이 26도를 기록한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분수에서 사람들이 더위를 식히는 모습. 지난 10년간 5월 3일의 평년 최고기온은 23.2도다. /뉴시스

자유정 롯데온 뷰티마케팅담당은 “올해 이상고온, 엔데믹, 긴 장마 예보 등이 맞물리며 여름 시즌 상품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어 행사를 앞당겨 준비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화장품 브랜드들은 4월부터 빠르게 여름 컬렉션을 선보이고 있다. 크리스찬 디올 뷰티는 지난 1일 여름 신상품 ‘2023 썸머룩 메이크업 컬렉션’ 14

개 상품을 온앤더뷰티에서 선보였다. LG생활건강과 LF는 광택으로 건강미를 강조할 수 있는 신제품들을 선보였다. LG생활건강은 글린트 바이 비디보브에서 하이라이터 ‘피치문’을, LF는 아떼에서 광채를 강조한 ‘글레이즘 라인’을 신규 론칭했다.

롯데온에 따르면 3월부터 4월까지 두 달간 자외선 차단을 위한 ‘선케어’ 매출

은 전년 대비 약 50% 늘었다. 5월부터는 실시간 가장 많이 팔린 상품 순위에 ‘자외선 차단제’와 ‘파우더’ 등의 여름 관련 뷰티 상품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CJ온스타일은 아직 열대야가 시작된 않았으나 지난 1일부터 여름침구류 편성을 120% 늘렸다. 냉감 기능성 소재를 활용한 쿨링 침구류들을 중점 선보인다.

CJ온스타일 관계자는 “올해 여름도 무더울 것으로 전망되면서 고밀도 수면을 도와주는 제품에 대한 고객 수요가 커지고 있다”며 “3년만에 돌아온 엘니뇨 현상으로 무더위와 폭우가 예상되는 만큼 수요 대응을 위해 편성했다”고 밝혔다.

날씨에 민감한 아웃도어 패션 기업들도 4월 말부터 쿨링 기능을 강조한 신제품을 쏟아내고 있다. 저마다 냉감과 흡열, 자외선 차단 등 다양한 기능을 보유한 신소재 원단을 적용한 컬렉션을 출시하며 대체로 쿨링을 넣은 ‘아이스’를 캐치프레이즈로 삼았다.

블랙야크는 상변환물질과 쿨라겐, 유칼립투스, 자일리톨 등 냉감 소재를 활용한 ‘아이스 레이더 시리즈’를, 네파는 하이테크 우븐소재를 적용한 ‘아이

스텍셀 컬렉션’을 출시했다. K2는 ‘얼음실’로 불리는 신소재 초냉감 나일론 원사를 적용한 ‘코드10 시리즈’를 선보였으며 아이더는 냉감과 피부 열 흡수 기능을 보유한 ‘온타락 아이스 시리즈’를 냈다.

여행 수요가 여느해보다 높은 만큼 여행 플랫폼 업계와 호텔업계도 두 달여 남은 휴가철을 겨냥한 여름 기획전, 패키지로 경쟁하고 있다.

인터파크는 8일부터 7월 26일까지 대대적인 여름 캠페인을 진행한다. 미주, 유럽, 동남아, 대양주 등 전 세계 7개 권역 30개 인기 도시 여행상품을 순차 특가로 선보인다. 인터파크 관계자는 “올 여름 성수기 기간 중 고객 만족을 극대화하는 파격적인 프로모션으로 엔데믹 시대의 급증하는 해외여행 수요를 선점할 것”이라고 밝혔다.

티몬도 28일까지 3주간 1500여 개의 국내/해외여행 특가 딜을 확보해 ‘2023 티몬투어 여행박람회’를 연다. 여가어때도 다음달 4일까지 선착순 해외 숙소 추가혜택 20% 할인 쿠폰을 제공하는 ‘해외여행 최저가 박람회’를 진행한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 롯데월드몰에 150평 체험형 테니스매장

**‘테니스메트로’ 13일 정식 오픈  
22m×8m 규모 테니스코트 설치**

롯데백화점이 12일부터 13일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월드몰에 새롭게 문을 여는 150평 규모 체험형 테니스 매장 ‘테니스메트로’ 그랜드 오픈 행사를 진행한다. 12일 선개점한 뒤, 13일 정식 개점한다.

이번에 문을 여는 체험형 매장은 국내 최대 테니스 유통사인 ‘테니스메트로’와 협업한 것으로 상품 판매 중심의 기존 테니스 매장들과 달리 실제 테니스 코트를 설치하고 체험 요소를 강화했다.

강우진 롯데백화점 스포츠부문장은 “2030세대를 중심으로 불어온 테니스 열풍이 일시적인 유행을 넘어, 하나의 스포츠 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난 1년여간 입점 브랜드부터 매장 구성까지 심혈을 기울여 준비했다”고 밝혔다.

매장은 유명 브랜드부터 한정판까지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고 1:1 맞춤 서비스를 제공한다. 총 세가지(에센셜, 셀렉티브, 아카이브) 라인으로 상품을 구분했다. ‘에센셜 라인’은 기본 용품과 의류를, ‘셀렉티브 라인’은 롯데백화점 M D본부와 PB본부가 협업해 국내서 쉽게 보기 어려운 브랜드들을 선보인다. 미국 테니스스타 비너스 윌리엄스가 선

보인 ‘일레븐’이나 휴고보스의 ‘마테오 베리티니’ 등이 대표적이다.

‘아카이브 라인’에서는 시중에서 구하기 어려운 라켓을 한정 수량으로 판매한다.

매장내 독립된 공간의 ‘라켓 라운지’를 마련해, 라켓 컨설팅과 스트링 케어 등의 1:1 맞춤 서비스도 제공한다.

설치한 테니스 코트를 통해 다양한 체험형 콘텐츠도 선보인다. 가로 22m, 세로 8m 규모의 테니스 코트에서는 고객들이 직접 테니스 용품을 사용해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전문가로부터 높은 수준의 테니스 레슨도 받을 수 있다. 어린이를 위한 수업도 마련했다. /김서현 기자

## 11번가, 이용자 온라인 쇼핑트렌드 서비스

**‘머니한잔 소비 연구소’ 선보여**

11번가가 9일 마이데이터 서비스 ‘머니한잔’의 소비분석 서비스 ‘머니한잔 소비 연구소’를 선보였다.

‘머니한잔 소비 연구소’는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축적된 쇼핑 데이터를 분석해 나온 온라인 쇼핑 트렌드를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11번가 김종호 페이먼트기획담당은 “아직은 소비자들에게 낯설고 멀게 느껴질 수 있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소비생활에 밀접한 11번가가, 쉽고 친근하게 느껴질 수 있도록 준비한 서비스”라며 “앞으로도 소비자 관점에서 유익한 쇼핑 정보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처음 선보이는 콘텐츠는 건강기능식

품 관련 쇼핑 트렌드다. 유산균, 쿨라겐, 루테인, 홍삼, 비타민 등 인기 성분별로 가장 구매가 많은 상품을 1위부터 5위까지 알려주고, 20~60대까지 연령대별, 성별로 많이 구매한 상품도 인포그래픽으로 나타냈다. 다양한 건강식품들을 기능별로 각각 어떤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카테킨, 세라마이드, 아르키닌, 아스타잔틴 등 성분 별 도움되는 것들을 알기 쉽게 정리했다. 다음 트렌드는 올 여름 시즌 바캉스, 피서, 장마 등 여름 필수 아이템에 대한 소비 트렌드가 될 예정이다.

한편, 11번가는 지난해 10월 e커머스 사업자로서 마이데이터 서비스 ‘머니한잔’을 출시했다. 11번가의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은행이나 카드사의 서비스와 비교해 고객들의 소비분석에 특화된 것이 특징이다. /김서현 기자

## 오투기 13일 가족요리 페스티벌

㈜오투기가 오는 13일 과천 서울랜드 피크닉장에서 국내 최대 요리축제인 ‘스위트홈 제26회 오투기 가족요리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13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전년 대비 참가자 규모를 2배 늘려 총 100개팀이 열린 요리 경연을 펼칠 예정이다.

수상자에게는 ▲오투기상 500만원(1개팀) ▲오프상 200만원(2개팀) ▲사랑상 100만원(3개팀) 등 총 1200만원 상당의 전자제품 교환권이 주어지며, 올해 신설된 ▲특별상 20만원(5개팀) 수상자에게는 총 100만원 상당의 오투기몰 쿠폰을 제공한다. 여기에 300만원 상당의 홍콩여행 상품권이 걸린 행운권 추첨 이벤트도 준비돼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 ‘어버이 날’ 홈플러스, 어르신에 보양식 대접

전북서 400명에 카네이션 선물도

홈플러스가 지난 8일 전라북도노인복지관에서 어버이날을 맞아 전북 지역 내 어르신 400여명에 보양식을 대접하고 카네이션을 선물했다.

이번 ‘어버이날 맞이 어르신 보양식 나눔행사’에는 본사, 전사 근로자 협의기구인 ‘한마음협의회’와 전북권 홈플러스 5개 점포 임직원들이 참여했다. 지난 2월 (사)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와 진행한 변산반도 해안가 환경정화회 이은 두 번째 연합 봉사활동이다.

홈플러스는 임직원 릴레이 봉사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오는 6월 말까지 전국 50여 개 점포에서 취약계층 여름나기 물품 지원, 화재 피해자 물



전라북도노인복지관에서 8일 진행한 어버이날 맞이 보양식 나눔행사서 홈플러스 직원이 어르신에게 카네이션을 전달하고 있다. /홈플러스

품 지원, 환경 정화 활동 등을 계획 중이다. /김서현 기자

## 롯데홈쇼핑, 김지애의 ‘리빙 에센스’ 론칭

14일 다이슨 에어랩롱베럴 소개

롯데홈쇼핑이 매주 오전 10시 김지애 쇼호스트의 리빙 전문 프로그램 ‘리빙 에센스’를 선보인다.

최근 상품 판매를 넘어 최신 트렌드, 상품 활용 비법 등을 전하는 분야별 전문 프로그램이 고객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일반 방송 대비 50% 이상 높은 주문액을 기록 중이다.

진행을 맡은 김지애 쇼호스트는 2021년 입사 이후 리빙, 생활, 식품 등을 주로 담당하고 있다. 자극적이지 않은 진솔하고 편안한 진행, 상품에 대한 꼼꼼한 분석과 정보 전달이 장점이다. 김지애 쇼호스트는 리빙에센스

에서 직접 사용한 뒤 간간한 기준으로 고른 상품을 트렌드와 함께 소개할 예정이다.

오는 14일에는 다이슨의 에어랩 롱베럴을 소개할 예정이다. 7월 첫방송에서는 프리미엄 쇼파 브랜드 자코모의 미엘르 하이 쇼파를 단독으로 선보여 주문금액 20억원을 기록했다.

한편, 롯데홈쇼핑은 최유라쇼(리빙), 엘쇼, 영스타일(패션), 테이스티:맛(식품) 등 분야별 전문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김서현 기자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 K-바이오, 글로벌 시장 판매고 ‘쑥쑥’… 실적 고공행진

바이오시밀러 출시, 생산량 증가  
하반기 실적 추가 개선 기대감

**셀트리온 1분기 매출 5975억**  
**삼성바이오로직스**  
**분기 영업익 전년동기비 33% ↑**

국내 주요 바이오 기업들이 1분기에 나란히 사상 최대 실적을 썼다. 자체 개발한 바이오시밀러가 글로벌 시장에서 높은 판매고를 이어가고 있는 덕이다. 특히 새로운 바이오시밀러 출시와 생산량 증가로 올해 실적 호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기대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최대 실적 경신 이어진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셀트리온은 지난 8일 연결기준 경영실적 공시를 통해 올해 1분기 5975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년 대비 12.4% 늘어난 규모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1823억원으로 41% 급증하며, 영업이익률은 30.5%를 달성했다.

올해 1분기 실적은 바이오의약품 매

출 증가가 전체 매출 성장을 견인했다. 바이오의약품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9% 증가하며 사상 처음 4000억원을 돌파했다.

회사측 관계자는 “램시마SC의 매출 비중이 확대되고 유럽 및 미국 시장에서 주요 바이오시밀러 제품의 점유율도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영업이익 증가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시 사상 최대 실적을 썼다. 위탁생산개발(CDMO) 사업의 안정적인 성장으로 1분기 연결 기준 7209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41% 급증한 최대 분기 매출이다. 영업이익은 1917억원으로 전년 대비 9% 늘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1분기 별도기준 매출은 5910억원, 영업이익은 2344억원을 기록했다. 원료의약품(DS) 판매량 증가, 환율 상승영향 등으로 매출 및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대비 각각 16%, 33% 증가했다. 특히 영업이익의 경우 1~3공장을 풀가동하며 운영 효율

을 극대화한 결과 큰 폭으로 늘었다.

◆하반기 실적 날개 단다

앞으로의 전망은 더욱 밝다. 2분기부터 새로운 바이오시밀러 제품 진입이 이어지는 데다, 하반기 생산량 확대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셀트리온에 따르면 램시마SC는 올해 10월 미국 허가가 예상된다. 또 지난 4월 말 졸레어 바이오시밀러 CT-P39의 유럽 품목허가 신청을 완료한 데 이어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CT-P43,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CT-P42의 글로벌 허가도 준비 중에 있다. 오크레부스 바이오시밀러 CT-P53의 글로벌 임상 3상에 착수했으며, 프롤리아 바이오시밀러 CT-P41, 악템라 바이오시밀러 CT-P47 등도 현재 임상 3상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SK증권 이동건 연구원은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의 근거가 된 램시마SC는 올해 4분기 미국 허가까지 예정된 만큼 미국 출시를 전후로 셀트리온의 램시마SC 매출 호조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시 4공장이 풀가동되는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지난해 10월 6만리터 규모에 대해 부분가동을 시작한 4공장은 오는 6월 나머지 18만 리터에 대한 가동을 개시할 예정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최근 4공장의 매출 기여가 가시화됨에 따라 올해 실적 전망치를 3조3765억원에서 3조5265억원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특히 지난 1분기 글로벌 제약사 GSK·화이자·일라이릴리와 총 5000억원 규모의 위탁생산(CMO) 계약을 연이어 체결하며 수주경쟁력을 입증했다.

IBK투자증권 이선경 연구원은 “6월 본격적으로 가동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공장이 선 수주 활동을 통해 9개사, 12개 제품에 대한 계약이 확정, 현재 29개사 44개 제품에 대해 계약 협의 중”이라며 “풀가동시 연 1조원 이상의 매출이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 강스템, CDMO 사업 순항

(위탁개발생산)

세포치료제 기반 4개 프로젝트 수주  
‘바이오코리아’ CDMO 기업 참석

강스템바이오텍이 세포·유전자치료제로 서비스 영역을 넓히며 위탁개발생산(CDMO)사업을 확장한다. 강스템바이오텍은 줄기세포치료제, 엑소좀, mRNA(메신저리보핵산) 기반 세포유전자치료제 등 고객사로부터 다양한 유형의 위탁개발생산 수주를 진행 중이라고 9일 밝혔다.

강스템바이오텍은 지난 2020년 12월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 허가과 함께 세포치료제를 기반으로 한 CDMO 사업을 개시, 현재까지 총 4개의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이를 통해 국내 최초로 개발 중인 안과용 윤부줄기세포 치료제 생산과 만성척수손상 환자를 위해 저분자 화합물을 줄기세포에 처리하여 신경전구세포로 분화하는 세포 치료제 개발 및 생산을 위탁받았다. 창상치료제를 위한 엑소좀 생산 및 품질 시험도 진행하게 되었으며 해당업체는



강스템바이오텍 글로벌 R&D 센터 /강스템바이오텍

최근 임상 1/2a상 임상시험계획(IN D)을 신청한 바 있다. 또 mRNA 탑재에 기반이 되는 제대혈 줄기세포 제공 및 치료제 위탁 생산·공급을 통해 mRNA 도입 세포유전자치료제 개발 가속화에 기여하며 CDMO 사업 분야를 유전자치료제 영역까지 확대하였다.

한편, 강스템바이오텍은 오는 5월 10~12일 코엑스에서 열리는 ‘바이오코리아 2023’에 CDMO 기업으로서 참석한다. 회사측은 부스를 설치하여 줄기세포 배양 배지, 세포 동결 및 해동 플랫폼 크라이오서포트, 퍼플비 등을 전시하고 CDMO 사업 전반에 대한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세경 기자 seilee@

## 광동제약 “소중한 반려동물, 등록해주세요”

‘YES 프로젝트’ 2기 진행

광동제약이 제주 지역 유기동물을 돕는 동물권 보호 캠페인 ‘YES(Your Energetic Supporters)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반려동물 등록제 알리기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YES 프로젝트는 광동제약과 제주 삼다수, 반려동물용품 브랜드 페이스를 함께 하는 동물권 보호 캠페인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진행되는 YES 프로젝트 2기는 반려동물 등록의 중요성을 알리고 동물 유실 및 유

기를 방지하고자 마련됐다.

광동제약과 페이스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영상 NFT 작품 ‘소중한 반려동물 지키는 동물등록 캠페인 by 페이스 x 광동제약’을 100개 한정으로 발행해 판매한다. NFT 영상에는 캠페인 취지에 맞춰 반려동물 애월이와 보호자의 감동적인 재회 장면을 담았다.

해당 NFT는 9일부터 일주일간 카카오톡 클립톱스를 통해 4만5000원에 구매할 수 있으며, 판매 수익금은 제주 동물보호단체에 전액 기부된다.

/이세경 기자

## 이화의료원 ‘범부처 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 선정

김한수 교수·강덕희 교수 연구팀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 연구팀들이 ‘2023년 범부처 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에 선정되며, 국내 재생의료 연구를 견인하고 있다.

이화의료원은 이비인후·두경부외과 김한수 교수와 신장내과 강덕희 교수가 ‘2023년도 범부처 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에 각각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이화의료원 연구팀은 2012년 세계 최초로 수술 후 버려지는 편도선 조직으로부터 줄기세포를 추출하여 다양한 재생의학 연구를 진행해 오고 있었는데, 이번 과제 선정도 그간의 연구 결과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먼저 ‘난치성 부갑상선 기능저하증 세포치료제의 개발’ 과제로 ‘재생의료



김한수  
이화의료원 교수

강덕희  
이화의료원 교수

융합기술 개발’ 분야에 선정된 김한수 교수는 향후 3년간 연구를 수행하게 되며 약 15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는다.

강덕희 교수 연구팀(강덕희 교수, 김달아 교수, 조철호 교수)은 ‘복막투석 환자의 복막재생을 위한 줄기세포 치료법 발굴 및 효과 검증’ 과제로 사업에 선정되며 2023년 4월부터 향후 3년간 15억원의 연구비 지원을 받는다.

/이세경 기자

## 하이트진로 ‘소방가족 오운완’ 챌린지 개최

하이트진로는 소방청과 함께 ‘소방가족 오운완(오늘 운동 완료) 챌린지’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2020년 시작된 소방가족 오운완 챌린지는 올해로 4회째를 맞이했으며 비대면 체력증진 대회 방식으로 진행된다. 하이트진로 임직원 및 소방가족의 일상에서의 체

력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하이트진로 임직원과 소방공무원 및 가족뿐 아니라 순직 소방공무원 유가족도 함께 참여해 더욱 큰 의미가 있다. 챌린지는 5월 7일부터 7월 1일까지 8주간 진행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 에이피알 메디큐브 화장품 모델에 유재석

정지소 등 출연 부문 광고 공개

에이피알(APR)이 지난 2일 유재석과 정지소가 출연하는 메디큐브 화장품 부문 광고를 공개했다고 9일 밝혔다.

새롭게 모델로 발탁한 유재석과 정지소 두 사람이 피부에 대한 연구 및 화장품 성분에 대한 탐구를 멈추지 않는 메디큐브 화장품의 신뢰도와 장점에 대해서 소개하는 내용이다.

/김서현 기자 seoh@

### 유통업계 신제품

정관장

녹용담은 블랙마카 스틱

홍삼담은 엘더베리 스틱

정관장의 자연소재 건강식품 브랜드 굿베이스가 세계 유명 주산지에서 자란 고품질 원료를 엄선해 만든 ‘녹용담은 블랙마카 스틱’과 ‘홍삼담은 엘더베리 스틱’ 신제품 2종을 출시했다.

‘녹용담은 블랙마카 스틱’은 페루산 블랙마카와 뉴질랜드산 녹용을 진하게 담아낸 액상형 스틱 제품이다. 1포당 페루산 블랙마카 농축액 2000mg과 녹용추출물 100mg을 담아내 풍부한 활력과 스태미나를 제공한다.

‘홍삼담은 엘더베리 스틱’은 유럽의 대표 건강열매인 오스트리아산 엘더베리와 정관장 6년근 홍삼농축액을 한 번에 섭취할 수 있는 제품이다. 1포당 생과 약 21g에 해당하는 엘더베리 농축액 3280mg가 담겨져 있다.

/신원선 기자

JW중외제약

노펜 마사지젤 ‘핫·쿨’ 2종

JW중외제약은 파스브랜드 ‘노펜’의 신제품 ‘노펜 마사지젤 핫’과 ‘노펜 마사지젤 쿨’을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노펜 마사지젤 핫은 고추 추출물과 캠퍼 등이 온찜질과 같은 온열감을 부여하며 운동 전 워밍 및 스트레를 완화시켜주고 지친 피부에 생기를 더해주는 데 도움을 준다.

노펜 마사지젤 쿨은 병풀 추출물을 포함한 5종의 센텔라콤플렉스와 멘톨을 함유해 운동 전 쿨링 및 피부 보습과 진정을 돕는다. 특히 이번 신제품은 회전볼 애플리케이션으로 피부에 쉽게 도포할 수 있어 사용 편의성도 높였다.

/이세경 기자



프렌치 싱글몰트 위스키 브렌 3종 /아영FBC

아영FBC

프렌치 위스키 ‘브렌’ 3종

종합주류기업 ㈜아영FBC는 세계 최초로 프렌치 리무진 오크와 코냐 캐스크에서 숙성된 프렌치 싱글몰트 위스키 ‘브렌(BRENNE)’을 독점 출시한다고 9일 알렸다.

‘브렌’은 엘리스 파르크의 가족이 운영하고 있는 코냐 농장에서 뉴 프렌치 리무진 오크와 코냐 캐스크 숙성을 결합하여 생산한 독특한 스타일의 오가닉 프렌치 싱글몰트 위스키다.

이번에 독점 출시되는 ‘브렌’ 3종은 ▲브렌 프렌치 싱글 몰트 위스키 에스테이트 ▲브렌 프렌치 싱글 몰트 위스키 10년 ▲브렌 브렌 프렌치 싱글 몰트 위스키 피노 데 사탕파 피나쉬이다.

/신원선 기자



# 2022년 대한민국 콘텐츠 대상 수상작!

블록버스터뮤지컬

# 아메드사우루스

2023. 6. 2(금) - 6. 25(일) 우리금융아트홀

© STUDIO EON / DAEWON MEDIA



예매 | 인터파크티켓 문의 | 02-764-9102

주최 | 대원미디어 주관제작 | 이지기획 마케팅 | 이제이컴퍼니







#### 우리금융미래재단, 발달장애 미술가 해외 진출 지원

우리금융미래재단은 국내 재능있는 발달장애 미술가의 작품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2023 한·EU 발달장애 미술가 해외교류전'을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우리금융미래재단이 오는 29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주최하는 '2023 한·EU 발달장애 미술가 해외교류전'은 국내 발달장애 미술가를 해외에 소개함으로써 활동무대를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우리금융미래재단



#### NH농협은행, '어버이날 효사랑 큰잔치' 후원

NH농협은행은 '어버이날 효(孝) 사랑 큰잔치'에서 독거 어르신들을 위한 후원금 500만원을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왼쪽)과 김성훈 농협은행 고객행복센터장이 '어버이날 효(孝)사랑 큰잔치'에서 후원금 전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NH농협은행



#### 한화임팩트, 사회복지협의회 3500만원 기부

한화임팩트가 서울 소재 사회복지시설의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에 기부금 3500만원을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전명수 사무총장(왼쪽)과 김홍기 한화임팩트 사업지원담당이 서울 마포구 서울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기부금 전달식을 진행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화임팩트



#### 기보, 부산 지역사회 위한 나눔 활동 펼쳐

기술보증기금이 어버이날을 맞아 본사가 있는 부산에서 지역사회를 위해 나눔을 실천했다. 기보는 기보사랑봉사단 20여 명이 9일 부산 남구에 있는 감만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어르신 특식나눔 활동을 펼치고, 자매결연한 철북시장에서 구매한 지역 농수산물 등 250만원 상당의 물품을 복지관에 후원했다고 밝혔다. /기술보증기금



#### 삼성전자서비스, 울릉도 가전제품 특별점검

삼성전자서비스가 무더위를 앞둔 울릉도로 시원한 바람을 지키러 간다. 삼성전자서비스는 9일부터 12일까지 울릉도에서 '가전제품 특별점검'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삼성전자서비스는 올 여름 주인과 관광객이 삼성전자 가전제품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이번 특별점검을 기획했다. /삼성전자서비스

## GS칼텍스 “일상 속 걷기로 ‘그린 트랜스포메이션’ 실현”

### 이달말까지 걸음기부 캠페인 1억 적립 목표… 지역학교 기부

GS칼텍스가 창립 56주년 기념 임직원 걸음기부 캠페인 50일간 진행하며 사회 공헌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GS칼텍스는 9일 서울 강남구 GS타워에서 선정릉 왕복 코스를 약 1만보 걷는 걸음기부 행사를 진행했다. 이 날 행사에는 19일로 다가온 GS칼텍스 56주년 창립기념일을 맞아 허세홍 사장과 장기근속자 등 임직원들이 함께 참여했다.

이는 GS칼텍스가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 신사업을 본격화하는 '그린 트랜스포메이션(Green Transformation)'을 일상 속 걷기를 통해 실현하는 것으로, GS칼텍스의 에너지 절약과 탄소저감 실천의지를 사회 공헌과 접목시킨 활동이다.

허세홍 사장은 “GS칼텍스의 걸음기부 캠페인을 통해 일상의 작은



허세홍 GS칼텍스 사장(가운데)과 장기근속자 등 임직원들이 9일 서울 강남구 GSE타워에서 선정릉 왕복코스를 걸으며 걸음기부에 참여했다. /GS칼텍스

노력이 건강도 지키고 지구도 살리는 에너지가 될 것”이라며, “탄소저감을 위한 걸음기부는 GS칼텍스 그린 트랜스포메이션의 일환으로 사회와 환경에 순기능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GS칼텍스의 걸음기부 캠페인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변화의 발걸음'이라는 슬로건 아래 4월 12일에 시작해 5월 31일까지 50일간 임직원들

의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된다. 이러한 탄소저감 실천 활동을 통해 임직원들이 Green Transformation(그린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가치를 내재화하고 환경과 사회에 기여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임직원 걸음수 산정은 걸음기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빅워크'를 활용한다.

걸음기부는 자동차를 이용하는 대신 생활 속 걷기를 통해 탄소배출

## SKB “‘보리수·마야’ 등 해외 명작영화 안방에서 즐기세요”

### 시니어 행복증진 프로그램 운영 일반 영화 2배 이상 큰 자막 제공

SK브로드밴드는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ESG 경영 활동의 일환으로 서울 종로에 위치한 허리우드극장과 제휴를 맺고 시니어 행복증진 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제휴를 통해 양측은 현재 허리우드극장에서 상영 중인 고전영화를 SK브로드밴드 B tv 해피시니어 내 '추억을 파는 극장' 메뉴에서 제공한다. '보리수', '마야' 등 시니어에게 인기가 높은 수십 편의 해외 명작영화를 엄선해 일반 영화보다 2배 이상 큰 자막으로 제공함으로써



시니어들이 허리우드극장에서 디지털 코치로부터 B tv AI 셋톱박스, 리모컨, 키오스크 사용법 등에 대한 교육을 받고 있다. /SK브로드밴드

시력이 약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시니어들도 안방에서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준비했다.

또한 이달 18일까지 B tv 해피시

니어에서 OCEAN 시니어 월정액 상품에 가입하면 스타벅스 쿠폰과 함께 허리우드극장에서 명작영화를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티켓과 극장 매점에서 즐길 수 있는 다방커피 할인쿠폰도 증정해 온오프라인에서 추억을 오감으로 경험할 수 있는 이벤트도 마련했다.

매주 월요일 오전에는 허리우드극장 내 '낭만극장'에서 시니어들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전문가가 음성인식으로 작동하는 B tv AI 셋톱박스와 리모컨 사용법을 교육하고 극장 무대에서 실제로 체험해보는 교육과정을 올해 말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허리우드극장 매점 키오스크에 디지털 코치 2명을 배치해 시니어들이 실제로 메뉴 주문을 해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체험존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SK브로드밴드는 허리우드극장 매점 키오스크 단말기로 제품 구매 시 영화 및 음료 할인쿠폰을 증정해 식당, 은행 등에서 시니어들이 조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키오스크 사용법을 적극 지원하고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채윤정 기자 echo@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 LS MnM, ‘지속가능성장경영 보고서’ 창간호 발간

### ‘카퍼마크’ 조건 완전 충족 탄소중립 위한 로드맵 등 담겨

LS MnM이 카퍼마크 요건을 완전히 충족했다.

LS MnM은 9일 지속가능성장경영보고서 창간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LS MnM은 2021년 아시아 동계련소 처음으로 전세계 동산업계 ESG 인증인 ‘카퍼마크’를 획득한 바 있다. 당시 카퍼마크에서 지속가능



모델들이 LS MnM 지속가능성장경영보고서 창간호를 펼쳐보이고 있다. /LS MnM

성장경영보고서 발간을 조건으로 제시받았으며, 이번 창간호로 카퍼마크 조건을 완전히 충족했다.

/김재웅 기자 juk@

## 효성첨단소재, 비주얼 아트 수상작 선정

### 25일부터 팝업스토어 전시

효성첨단소재가 MZ세대 시대에 서 만든 작품으로 정체성을 알린다. 효성첨단소재는 최근 아티스트

컬래버레이션 프로젝트 작품을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효성첨단소재는 지난 1월 픽스필즈에서 진행한 공모전을 통해 60여명 작가 작품 중 최우수작 16작품을

뽑았다. 효성첨단소재의 지향가치인 안전성, 지속가능성, 친환경, 미래지향성 등을 비주얼 아트로 표현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선정작은 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 서울 무신사 테라스 성수에서 열리는 효성첨단소재 팝업스토어에 전시할 예정이다. /김재웅 기자

### 인사

- ◆문화체육관광부 ◇고위공무원 임용 △장관정책보좌관 최성희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신은향
- ◆동덕여대 △학생처장 김춘경

### 부음

- ▲이상열씨 별세, 이동훈(광주 신세계 대표이사)씨 부친상 = 9일 오전 1시30분, 마산의료원장례식장 301호, 발인 11일 오전 6시40분. ☎055-249-1700
- ▲안석흠씨 별세, 건모(동서부 동산 대표)·학모(베리굿로지스 대표)·순모·정모·미모(전 강원도 의원)·양모씨 부친상, 김정식·육용복(레돈도비치 우편 별관)·배연호(연합뉴스 강원취재본부 부장)·황원중씨(한솔도시락 강대점 대표) 장인상=8일 오후 3시, 강원대학교병원 장례식장 203호, 발인 11일 오전 8시. ☎033-258-9403





유한양행

우리 가족 모두 **마그네슘 충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가정의 달 5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마그네슘  
함량 UP  
신제품 출시

마그네슘 부족으로 인한  
**마그비스피드** 액 근육경련 | 육체피로 | 체력저하  
**마그비스피드 더블액션** 액 Double Action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첨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광고심의필 : 2023-1668-002201



# 어린이 비만의 종말



연 윤 열 의  
자유보감

어린이 비만이 우려할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학생건강감사에 따르면, 2021년 서울 초등학교 비만율이 약 20%에 도달하였고,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어린이 비만은 표준 체중보다 20% 이상 많거나, 같은 연령대에서 체질량지수(BMI)가 상위 5%일 때를 말한다. 비만은 음식으로 섭취하는 열량이 소비되는 열량보다 많으면 체내 지방세포가 성장하게 된다.

즉 비만의 주 원인은 과도한 음식 섭취에 기인한다. 과도한 영양 섭취로 발생한 유해한 활성산소로 말미암아 세포 내부의 미토콘드리아와 DNA가 자극을 받아 생명유지 활동에 사용되는 ATP 생성이 감소하고, 결국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하여 세포노화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지방세포 숫자가 늘어나는 비만을 지방세포 증식형이라고 하고, 지방세포 크기가 커지는 비만을 지방세포 비대형이라고 한

다. 그런데 어린이 비만은 대부분 지방세포 증식형이다. 비만세포의 크기는 작아질 수 있지만 비만세포의 숫자가 일단 증가하면 체중을 줄여도 절대 줄어들지 않는다.

따라서 어렸을 때 비만이 되면 성인이 되어서도 비만으로 이어져 지방세포 수와 크기가 모두 늘어나는 지방세포 증식 및 지방세포 비대 복합형 비만이 되기 쉽다. 어린이 비만이 되면 고혈압·당뇨병·이상지질혈증 등 대사 질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어린이 비만은 가족 식습관과 생활 습관의 영향을 받아 부모 중 한 명이 비만이면 자녀가 비만이 될 가능성이 50%정도나 되고 부모가 모두 비만이면 80%까지 증가한다. 따라서 아이 부모의 식습관이 패스트푸드와 과다한 육식 등 고칼로리, 고지방 음식을 즐긴다면 자녀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채소, 과일, 곡류, 견과류 등 균형있는 식단과 건강한 식습관으로 길들여야 할 것이다.

비만관련 설문조사에서 한국인 중 60%는 자신이 과체중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현재 다이어트 중이라고 응답한 사람도 55%나 되었다.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다이어트에 성공하려면 소비 칼로리보다

섭취 칼로리의 양을 줄여야한다.

효과적인 다이어트 기능성식품이라면 인슐린 분비를 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인슐린은 혈액속의 당함량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증가하면 세포의 인슐린 수용체와 결합하여 혈당을 낮추어 준다.

세포와 결합한 당 성분은 근육조직에서 글리코겐으로 바뀌고, 간에서 중성지방으로 전환되어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신호가 오면 에너지원으로 사용한다. 축적된 지방을 다량 함유한 지방세포는 아디포넥틴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여 지방세포에서 염증성 물질들이 만들어지고, 유리지방산이 증가하면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긴다.

반면, 지방세포에서 분비되는 렙틴은 식욕을 억제하고 체내 대사를 활발하게 해서 체중을 감소시키는 호르몬이다. 렙틴이 부족하면 식욕을 부추겨 비만을 초래하게 된다. 즉, 렙틴은 음식 섭취를 줄이고 지방 축적을 억제하는 식욕조절 호르몬으로 작용한다. 권장할 만한 다이어트 방법으로는 하루에 필요한 열량보다 500kcal를 적게 섭취하는 방법이다.

섭취량을 줄였을 경우 1주일에 약 0.5~1.0kg의 체중감량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재)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식품산업연구센터장

## 삼성에게 ‘엑시노스’는?



기 자 수첩  
허 정 윤  
(산업부)

글로벌 경기침체가 좀처럼 끝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삼성전자도 파고를 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1~3월) 반도체 부문 4조5800억원 규모 적자를 기록하며 부진한 성적표를 받아들었지만, 스마트폰과 가전 부문에서 수익성을 개선하며 1분기를 마무리했다.

1분기 효자는 ‘갤럭시 S23 시리즈’였다. MX(모바일 경험)·네트워크 부문에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영업이익은 3.1% 증가했다. 매출은 2% 줄어든 31조8200억원을 올렸지만, 영업이익 3조9400억원을 기록하며 이른바 어려운 시장에서 ‘선방’했다. 소비자들은 S22의 GOS(게임 최적화 서

비스), 발열, AP 문제 등을 개선한 것에 큰 호감을 드러냈다. 특히, AP는 스마트폰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으로 스마트폰의 ‘두뇌’로, 삼성전자는 갤럭시 S23 전 기종에 퀄컴의 AP를 전량 채용하며 소비자들의 신뢰를 다시금 얻어냈다.

S23 덕분에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입지도 단단해졌다. 대표적으로 프리미엄 판매 비중이 높은 유럽에서는 전작인 갤럭시 S22 대비 1.5배의 판매를 올리고, 인도·중동·중남미 할 것 없이 점유율 높이기에도 성공한 모습이다.

하지만 언제까지고 AP를 퀄컴에 의존할 수 없는 것도 현실이다. 퀄컴의 AP가 언제나 갤럭시 시리즈에 걸맞은 성능을 보여줄지도 확실하지 않고, 삼성전자의 자체 AP가 없으면 결국 퀄컴과의 가격협상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삼성전자의 AP 구매비용은 9조3138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3조원이나 증가했다. AP 가격이 폭등하면 원가 절감도 어려워지게 된다. ‘비싼 폰’이라는 인식이 있는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이라 할지라도 가격 경쟁력이 가지는 우위는 무시할 수 없다. 삼성전자가 아무리 글로벌 제조사라해도 부품 가격이 상승했는데 언제까지고 이번처럼 ‘출고가 동결’을 고수하기는 어렵다.

그렇기에 엑시노스는 삼성이 포기할 수 없는 존재다. 업계에서는 내년에 엑시노스의 프리미엄 라인업 복귀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빠르면 갤럭시 S24에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삼성전자는 영업이익이 줄어든 가운데에서도 R&D 투자는 6조5800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삼성전자의 선제적이고 꾸준한 투자가 엑시노스에서 발현되기를 바란다.

/zelkova@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5월 10일 (음 3월 21일) http://www.saju4000.com



취

36년생 약간의 먹구름이 끼었으니 일이 잠시 지체됨. 48년생 약속 시각에 늦을 수 있으니 시계 잘 보도록. 60년생 독존적인 사고로 지인을 잃는다. 72년생 미래를 위해 청약을 들어라. 84년생 누군가를 재밌게 흥보는 일은 멀어라.



소

37년생 사람을 믿는 것이 부담스럽다. 49년생 음악회에 초대받으니 기쁜 하루. 61년생 거짓 눈물에 속지 않도록 하자. 73년생 집에서 나의 고생을 알아주지만 언제나 외톨이가 되는 듯. 85년생 공짜에 맞들이다 밥맛 떨어질라.



호랑이

38년생 아무도 능력이라 했다. 50년생 우러나는 후한 끝은 있어도 박한 끝은 없다. 62년생 돈하고 아둔한 나를 닮았고 상대를 배려하도록. 74년생 앞날을 위해서 지금 실비보험을 들도록. 86년생 망신살의 부정적인 신살 주의함.



토끼

39년생 인맥이 도움이 되어 난국을 타개. 51년생 돌아가 쉴 집이 없다. 63년생 나의 이익을 위해 상대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75년생 망설임이 행운을 차서 도로 아미타불. 87년생 차가우니 박하다고 인정 없다는 소리를 듣는다.



용

40년생 자존심이 밥을 먹여주지 않는다. 52년생 힘겨움에 시달리는 건 결국 내 책임. 64년생 구설수가 있으니 새로운 만남에 신중. 76년생 노력한 만큼 성과가 좋으니 게으름은 떠나보내고. 88년생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만끽하자.



뱀

41년생 상대의 바람 상태가 심하지 않으면 용서를. 53년생 기대가 크나 시간이 많이 지나쳐서 이득은 적다. 65년생 열정과 희망이 넘치는 일과이다. 77년생 고통을 이겨내는 힘은 마음에 있다. 89년생 이별 통보도 각자의 인연 법.



말

42년생 문제가 어려워도 잘 풀어져 나간다. 54년생 병문안 가서 간절한 마음을 담아 기도해보라. 66년생 같은 땅 같은 씨라도 꽃이 피는 시기는 다르다. 78년생 첫 손가락에 배부르지 않다. 90년생 남의 허물을 말하거나 드러내지 말라.



양

43년생 답답한 마음을 알아주는 이가 있어서 다행. 55년생 금할수록 돌아가야 실수가 없다. 67년생 마음만 잘 다스려도 재물이 찾아온다. 79년생 지각하지 않도록. 91년생 겨울이 아니어도 귀신과 액을 쫓기 위해 팔죽을 쑤어 먹어보라.



원숭이

44년생 저녁에는 정서적 지지가 큰 힘이 된다. 56년생 사색하는 사람이 많으니 주의. 68년생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날 잎이 없다. 80년생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성의를 다하는 것이. 92년생 헤어진 아픔은 신앙이 있다면 기도로 힘을.



닭

45년생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 절이 떠날 수는 없는 것 아니겠는가. 57년생 힘들어도 끝까지 완주. 69년생 위장 질환이 의심되면 병원으로. 81년생 계약까지 외의외의 복병을 조심. 93년생 사건이 많다 보니 인생은 고해라는 말을 이해.



개

46년생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고 하지만 현실인 것. 58년생 새벽마다 일찍 일어나는 습관도 건강에 도움. 70년생 재혼의 예단 준비로 의견충돌 예상. 82년생 음주는 삼가라. 94년생 과학은 미래예측이 미리 예방되니 사전 준비할 수 있다.



돼지

47년생 참으로 어려운 것이 인간사 인연법인데. 59년생 나중에 철천지원수가 되어 버린 고부간이나 일이 될 수. 71년생 변화의 운이 있으니 움직여라. 83년생 그림을 취미로 해볼 것. 95년생 비를 맞고 감기에 걸리는 현상처럼 뽀얏다.

## 김상회의四季

금값 된 금

어떤 물건의 가격이 비싸졌을 때 금값이 뛴다고 표현한다. 요즘 금값이라고 부를 만한 물건이 있는데 금이다. 금 가격이 치솟으면서 말 그대로 금값이 뛴다. 주춤하고는 있지만 한 돈 가격이 한국 금시장 개설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시장은 가격이 어디까지 오를 것인지 주목하고 있다. 뉴욕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선물가격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금 가격이 오르는 건 먼저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SVB) 파산이다.

미국 내 자산 규모 16위이고 스타트업의 돈줄 역할을 하던 SVB 파산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우려가 촉발됐다. 경기가 침체하면서 금 투자가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다. 각국 은행들도 금을 매집하고 있는데 작년 전 세계 중앙은행의 금 보유량이 5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경제 불안으로 안전자산으로 돈이 몰린다는 의미다. 이런 상황에서 일반인들은 자연스럽게 금 투자에 관심이 쏠리기 마련이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인 관점으로 금 투자 매력이크다는 견해이다. 중앙은행의 지속적인 금 매수와 미국과 중국의 무역마찰 그리고 달러화 약세 기조도 금 가격 하락을 방어해 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그러나 금 가격이 급하게 상승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있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일반인들이 금에 투자하는 방법은 크게 금통장과 ETF로 나뉜다. 금통장은 은행에서 개설하는데 0.01g 단위로 금 거래를 할 수 있다.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다는 것도 장점이다. 종목이 많지는 않지만 관련 ETF에도 시선이 쏠리고 있는 편이다. 그러나 투자는 둘다리도 두들겨 보는 신중함이 필요하다. 시장 흐름은 물론이고 경기와 금리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 전문 투자자들의 행보를 참고하는 것도 방법이나 무엇보다 자기만의 철학과 투자기준이 있어야 한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             |                                |                   |     |
|-------------|--------------------------------|-------------------|-----|
| 발행·편집인      | 이장규                            | 편집국장              | 김승중 |
| 인쇄인         |                                | 중앙일보(주)           |     |
| 광고문의 / 독자센터 | 02)721-9851, 9826 / 02721-9861 |                   |     |
| 일간 메트로      | 서울 가00206                      | 2002년5월28일 제5185호 |     |
| 일간 메트로경제    | 서울 가50111                      | 2017년3월09일 제1289호 |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문제출제: 손호성

문제풀이방법  
4X3 스도쿠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9 ABC의 문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부동호 스도쿠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9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하루에 한 장 가격의 두뇌파즐  
사무라이스도쿠  
손호성 저 / 스도쿠65 / 10,000원

|   |   |   |   |   |   |   |
|---|---|---|---|---|---|---|
|   | 4 |   |   |   | 1 |   |
| 9 |   |   | 1 | 6 |   | 2 |
|   |   | 1 |   | 7 | 4 |   |
|   | 9 |   |   |   | 2 |   |
|   |   | 8 |   |   | 9 |   |
|   | 6 |   |   |   |   | 8 |
|   |   | 7 |   | 6 | 2 |   |
| 4 |   |   | 8 |   | 7 |   |
|   | 5 |   |   |   |   | 7 |

|   |   |   |   |   |   |   |   |
|---|---|---|---|---|---|---|---|
|   |   | 1 |   | 2 |   | 8 |   |
| 6 |   |   | 1 |   | 9 |   | 5 |
|   | 6 |   | 9 |   | 7 |   |   |
| 4 |   |   | 7 | 5 | 3 |   | 6 |
|   |   | 2 |   | 1 |   | 4 |   |
| 9 |   |   | 3 |   | 5 |   | 8 |
|   |   |   |   |   |   |   |   |
|   |   | 5 |   | 6 |   | 9 |   |

정답

|   |   |   |   |   |   |   |   |
|---|---|---|---|---|---|---|---|
| 8 | 4 | 1 | 2 | 6 | 9 | 5 | 9 |
| 9 | 6 | 9 | 4 | 8 | 2 | 1 | 7 |
| 1 | 7 | 2 | 9 | 9 | 6 | 4 | 8 |
| 4 | 8 | 1 | 7 | 6 | 2 | 8 | 9 |
| 7 | 9 | 6 | 8 | 9 | 4 | 8 | 1 |
| 8 | 2 | 9 | 8 | 1 | 9 | 7 | 6 |
| 9 | 5 | 7 | 6 | 4 | 8 | 1 | 8 |
| 2 | 8 | 8 | 9 | 7 | 1 | 9 | 6 |
| 6 | 1 | 4 | 2 | 8 | 9 | 9 | 7 |

|   |   |   |   |   |   |   |   |
|---|---|---|---|---|---|---|---|
| 4 | 8 | 6 | 1 | 9 | 8 | 9 | 7 |
| 7 | 9 | 9 | 2 | 4 | 6 | 8 | 1 |
| 8 | 2 | 1 | 9 | 7 | 8 | 1 | 9 |
| 8 | 6 | 7 | 8 | 1 | 9 | 2 | 9 |
| 9 | 8 | 2 | 8 | 9 | 4 | 6 | 1 |
| 1 | 9 | 4 | 7 | 6 | 2 | 9 | 8 |
| 9 | 4 | 8 | 6 | 8 | 1 | 7 | 2 |
| 2 | 1 | 9 | 4 | 8 | 7 | 8 | 6 |
| 6 | 7 | 8 | 9 | 2 | 9 | 1 | 4 |

과·비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argo9.com



# 서울대·전국의대 정시 합격자 5명중 1명 ‘강남3구’ 출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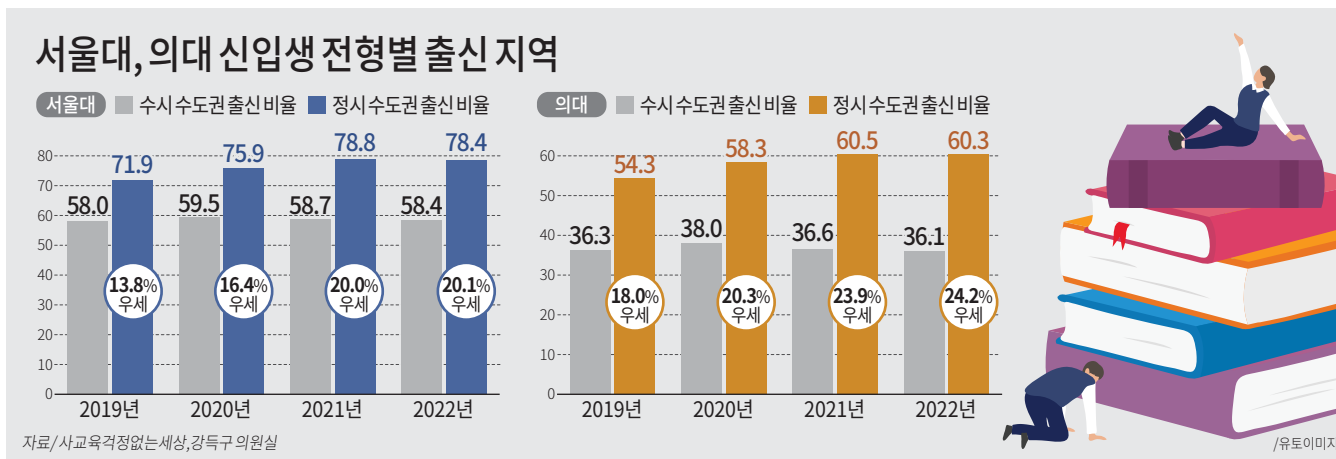
서울대 신입생 중 수도권 출신  
최근 4개년 평균 63.4% 달해  
전국의대, 45.8%로 매년 증가

국회 교육위 강득구 의원  
“정시, 사교육특구 조장 점검해야”

서울대와 전국의대의 정시전형 합격자 5명 중 1명은 ‘강남3구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대 정시전형 합격생은 5명 중 4명꼴로, 수시전형은 절반가량이 수도권 출신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지역별 교육 격차를 해결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서울대 정시 5명 중 4명은 수도권 출신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단안)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 신입생 중 수도권 출신은 최근 4개년(2019~2022



년) 평균 63.4%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대 정시에서 강남3구 출신 신입생 비율은 2019학년도 20.6%, 2022학년도 22.1% 등 4년 동안 모두 20%를 넘겼다.

더욱 우려할 점은 수도권 출신의 비율 증가세다. 서울대의 경우, 수도권 출신은 2019학년도 61.8%에서 2022학년도 64.6%까지 오르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전국 의대 역시 4개년 평균 45.8%가

수도권 출신으로, 2019학년도 44.2%에서 2022학년도 46.3%로 매년 증가했다.

수도권 학생들의 입시 결과는 세부 전형에 따라 그 격차가 더 심각했다. 서울대의 경우, 최근 4년간 수시 전형에서 수도권 출신 비율은 58%(2019학년도)에서 59.5%(2020학년도), 58.7%(2021학년도), 58.4%(2022학년도)였지만, 정시전형에서는 2019년 71.9%에서 2022학년도에는 전년 대비 4%가 상승

(75.9%)했고, 2022학년도에는 78.4%까지 치솟았다. 10명 중 8명이 수도권 출신인 셈이다.

◆ 의대도 강남 3구 출신 전성…“지역별 교육격차 해결해야”

이 격차는 의대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같은 시기 의대 수시전형으로는 수도권 출신 비율이 36%대(36.1%→38%→36.6%→36.1%)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지만, 정시전형에서는 2019년 54.3%에서 2020년에는 58.3%로 4%

가 오르고, 2022학년도에는 60.3%까지 치솟았다.

특히 강남3구 출신 학생 비율은 수시전형의 경우 2019년 8.5%에서 2020년 9.2%로 오른 뒤 2021년과 2022년 각각 8.0%, 7.3%를 보이며 오히려 줄어들어 지 않았지만, 정시전형의 경우 2019년 20.8%에서 2022년 22.7%까지 꾸준히 올랐다. 특히 2022년에는 강남3구 출신 학생 비율이 정시전형의 경우 22.7%로, 수시전형(7.3%)보다 3배에 가까운 합격률을 보였다.

강득구 의원은 “정시전형이 수도권과의 지역격차를 가속화하는 것을 넘어, 사교육 특구로의 쏠림을 부추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긴급하게 점검해야 한다”며, “현재 대한민국 입시 체제가 지역 위기를 구조적으로 조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진단하고, 정부는 교육격차 해결을 위해 과감하고 확실한 방안을 2028 대학개편에 담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 서울시민 70% ‘야간활동 활성화’ 찬성

문화예술·사회교류·관광 등 선호  
고려기능으로 ‘안심·안전’이 1위

서울시민 10명 중 7명은 ‘야간활동 활성화 정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3월 6~10일 서울에 사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벌였더니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9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68.9%는 야간활동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코로나19 이후 시민들의 ‘야간활동’ 현주소를 살펴보고, ‘야간활동 활성화’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정책적 공감성을 묻기 위해 진행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민들이 선호하는 야간활동 분야는 ‘문화예술·사회교류·관광·여가·문화(실내외 스포츠)’ 순이었다.

야간활동이 활성화됨에 따라 가장 고

려해야 할 기능으로는 ‘안심·안전’이 39.1%로 1위였다. ‘교통’(23.8%) ‘경제 회복’(14.5%), ‘문화·여가’(14.3%)가 뒤를 이었다.

시민들이 야간활동 활성화 정책 수립 시 가장 기대하는 사항은 ‘야간 교통수단 이용 편의 제고’(22.9%)였다.

‘건강한 야간 여가문화 조성’(21.1%), ‘야간의 소음·환경·치안 문제 해결’(14.9%)이 그다음이었다.

/김현정 기자 hjk1@

## 심폐소생술 모형 등 구입비 25억 지원

경기도교육청, 학교 500곳 대상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9일 도내 학교에 체험형 안전교육 기자재 구입비로 25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도내 초, 중, 고 및 특수 학교 500교이며 학교별 500만 원씩 총 25억 원을 지원한다.

지원받은 학교는 지원금으로 심폐소생술 모형, 교육용 자동제세동기, 교육용 소화기, 교통안전 기자재 등을 구입해 교과 및 비교과 시간에 활용이 가능하다.

경기도교육청 하덕호 학교안전과장은 “이론이 아닌 실습·체험 중심 교육으로 학교 현장 안전교육을 활성화하고,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함으로써 안전문화를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기=유진재 기자 yujin@



경기도교육청 전경.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체험·실습 중심 안전교육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4년부터 교육부 7대 표준 안전교육 분야(▲생활안전, ▲교통안전, ▲폭력예방·신변보호, ▲약물·사이버중독 예방, ▲재난안전, ▲직업안전, ▲응급처치) 관련 체험형 기자재 구입비를 학교 현장에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총 108억 4천만 원을 지원했다.

## 덕성여대, 청년 고용서비스 활성화 앞장

하이미디어 아카데미와 업무협약

덕성여자대학교(총장 김건희)는 ㈜하이미디어 아카데미와 최근 대학일자리본부 회의실에서 청년 고용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양 기관은 이날 협약을 통해 ▲4차 산업기술 전문 인재 양성교육과정 운영과 취업지원서비스 지원 ▲취·창업 역량개발 및 지원체계 구축 ▲수요 맞춤형 취업활성화 등 상호 발전을 위한 협력을 적극 추진기로 했다.

덕성여대는 고용노동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을 4년차 진행하면서 학생 및 지역 청년에게 체계적인 맞춤형 커리어 탐색 및 경력형성 기회를 제

공하고, 취업경쟁력 강화 및 성공 사회진출을 위한 진로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이미디어 아카데미는 디지털 컨버전스 디지털 디자인 등 K-디지털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비롯해 직무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전문교육기관이다. 고용노동부 K-디지털 프로그램,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다양한 국비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손재현 대학일자리본부장(일어일문 학전공 교수)은 “㈜하이미디어 아카데미의 다양하고 우수한 무료 국비 교육과정을 잘 활용해 학생들이 전공분야를 살려 해외 취업을 하고 이를 통해 글로벌 인재로도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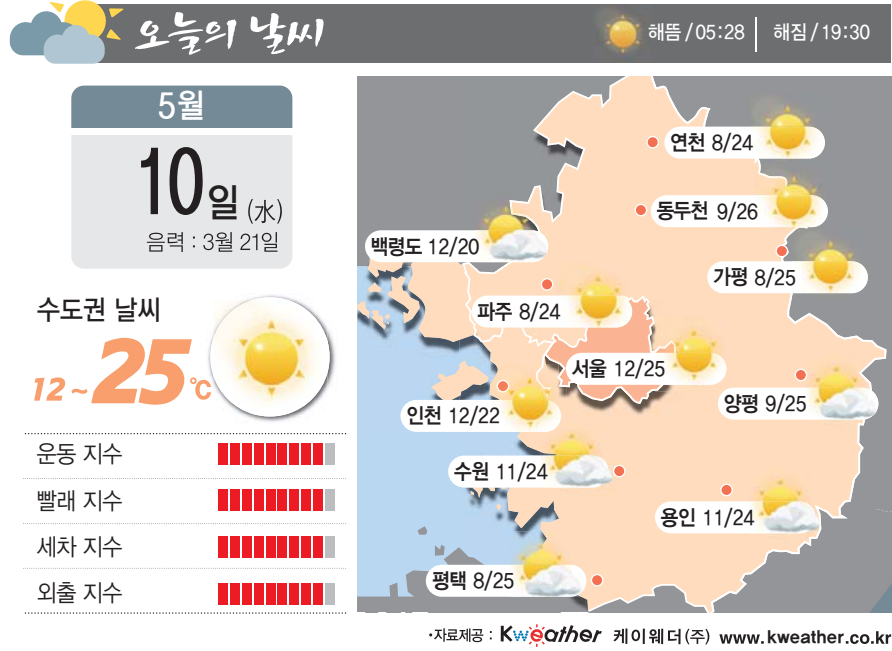
## 경기도, 300만원 이상 체납 연봉 1억 직장인 특별관리

경기도가 300만 원 이상 체납자 8만 명 가운데 1억 이상 연봉을 받는 고소득 직장인 체납자를 전수조사해 특별관리를 추진한다.

도는 5월까지 8만 명가량을 전수조사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확인된 체납자를 대상으로 급여 압류를 진행한다. 끝까지 납부를 거부하는 고액 체납자는 가택수색과 동산 압류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지난달 1만 명을 대상으로 한 사전 조사 결과 연봉 8억을 수령하면서 지방소득세 4천만 원을 체납 중인 의사부터 3억이 넘는 연봉을 받으면서도 상대적으로 300만 원의 재산세를 체납한 변호사까지 납세 태만 고액 체납자가 75명 발견됐다.

/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버스타비 **YAP**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캐나다, 정치인 뒷조사 의혹 중국 외교관 추방  
▲ 러시아, 붉은광장서 전승절 78주년 열병식 개최

/사진 뉴시스

▲ 독일, 유럽 승전일에 러시아 국가·상징물 금지  
▲ 중국, 4월 수출 급증…무역흑자 전년 비 82.3% 늘어



▲ 일본 경제산업상, 후쿠시마 시찰단에 “안전성 평가나 확인 아니다” 사진 뉴시스  
▲ 도쿄신문, 기시다 총리에 “강제징용 직접 사죄했어야” 비판





평년보다 더운 봄  
유통가  
여름맛이 앞당겨  
너

metro®

Life

K-바이오  
글로벌 시장  
판매고 '쑥쑥'  
L2



## 되살아나는 서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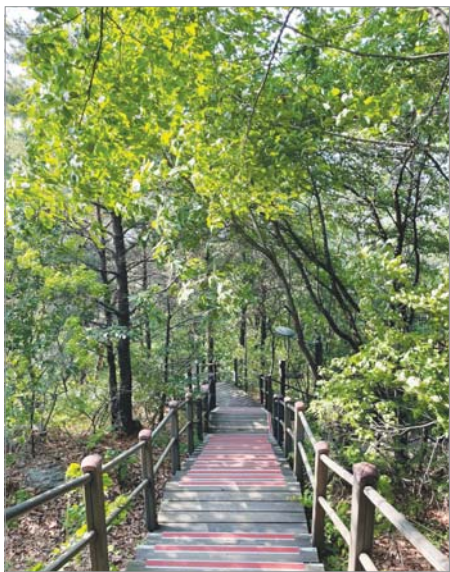
### ♻️ 성북구·동대문구 '청량공원'

청량공원은 서울 성북구와 동대문구에 걸쳐 있는 거대 녹지 공간으로, 해발 140m의 천장산을 품고 있다. 1940년 3월 12일 개원했고, 1995년 청량근린공원 조성이 계획되면서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 공원 규모는 76만 2642㎡에 이른다. 조선 왕릉이 자리해 대부분의 면적이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묶인데다가 산림과학연구를 위해 시험림으로 지정된 국유림이 있어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아 아름다운 자연이 잘 보존됐다.

▶지난 8일 오후 청량공원을 방문했다. 사진은 공원 내 마련된 '육모지붕'이 없어진 아담한 정자.



# 청량함 가득한 '녹색 산책로'... 천장산 품은 숲길 거닐다



다채로운 수목이 식재된 청량공원 산책로.

아름다운 자연 보존된 거대 녹지공간  
데크 산책로, 어르신 건강마당 마련  
강북 일대 한눈에 보이는 전망데크도  
조선 20대 왕 경종 잠든 '의릉' 볼거리



천장산(청량공원) 정상에 위치한 전망데크.

### ◆하늘이 숨겨놓은 곳, 천장산

지난 8일 오후 천장산에 있는 청량근린공원을 찾았다. 서울 지하철 6호선 상월곡역 3번 출구에서 한국예술종합학교 석관동 캠퍼스 방향으로 354m(6분 소요)를 걸으면 목적지에 도착하게 된다. 입구에는 원목으로 만든 키보드 손목 받침대처럼 생긴 나무 팻말이 서 있다. 팻말 안에는 'sb성북 청량근린공원'이라는 문구가 새겨졌다.

경사가 완만한 나무 데크 계단을 따라 공원이 있는 천장산을 올랐다. 햇빛을 가리기 위해 팔토시와 밀짚모자, 마스크로 무장한 할머니 두 분이 데크에 설치된 벤치에 앉아 건강에 좋은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서울역사편찬원이 펴낸 '서울지명사전'에 따르면, 공원이 위치한 천장산(天藏山)의 산명은 '하늘이 숨겨놓은 곳'이라는 뜻에서 유래된 이름이다. 연화사의 삼성각 상량문에 의하면 '진여불보의 청정법신이 시방 삼세에 두루하지만 드러나 보이지 않는다'고 해 천장산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한다.

청량공원에 와 보면 신이 왜 여기를 꼭꼭 감추고 싶어 했는지 알 수 있다. 휘황찬란한 진분홍색 철쭉과 속고의처럼 생긴 흰꽃이 달린 바위취, 작은 깎잎 모양의 노루오줌, 밥풀 여러 개가 붙어 있는 것 같은 돌단풍과 아직 꽃이 피지 않은 가우라 등이 층층이 심어져 장관을 이룬다. '나만 알고 싶은 공원'의 목록에 넣고 싶은 생각이 절로 들었다.

다채로운 수목을 감상하며 데크를 걸었

다. '육모지붕'이 없어진 아담한 정자와 함께 '어르신 건강마당'이 나왔다. 정자는 여섯 개의 기둥이 지붕을 받치고 있는 형태로 만들어졌으며, 내부에는 시계와 거울이 각각 한 개씩 걸려 있었다. '정자에 강아지를 올리면 안 됩니다. 사람이 쉬는 곳입니다'라는 안내문을 킁킁거리며 읽은 뒤 주변을 둘러봤다.

건강마당에서 풍류를 즐기던 동네 주민들은 아는 얼굴이 보이면 자연스럽게 다가와 "아이고, 드디어 왔네", "왔구먼 왔어" 등의 인사말을 주고받았다. 건강마당은 국내 최초로 조성된 고령자용 테마공원으로, 지난 2008년 어버이날 845㎡ 규모로 개장했다. 팔 돌리기, 어깨 스트레칭 운동 기구 등이 마련됐다.

건강마당을 지나 산 정상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바람에 흩날리는 아카시아 꽃향기를 맡으며 즐거운 마음으로 산행을 하다 보면 등반이 없는 벤치 두 개가 놓인 갈림길이 나온다.

갈림길에서 왼쪽으로 들어 성북구 방향으로 내려갔다. 참고로 우측 동대문구 방향으로 하산하면 경희대, 한국과학기술원 등이 나온다. 벤치가 마련된 작은 쉼터에서 좌측으로 꺾은 뒤 3분 정도를 걸어 천장산 전망데크에 도달했다.

강북 일대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날에는 좌측에서부터 순서대로 내부순환도로, 국민대학교, 북한산 형제봉·비봉·보현봉, 동덕여자대학교, 북한산만경대·백운대·인수봉, 오동근린공

원, 북부간선도로, 월곡초등학교, 도봉산 신선대·자운봉·만장봉을 볼 수 있다.

### ◆이리저리 거닐기 좋은 산책로

짧은 산책 코스가 아쉽게 느껴진다면 의릉을 둘러보는 것을 추천한다. 의릉에는 조선의 20대 왕인 경종과 두 번째 왕비 선의 왕후 어씨가 잠들어 있다.

1960년대 초에는 중앙정보부가 능역 내에 있어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됐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의릉의 홍살문과 정자각 사이에 연못을 만들고 돌다리를 놓는 등 훼손이 심했다고 한다. 이후 중앙정보부가 국가안전기획부로 바뀌었고, 서초구 내곡동으로 터를 옮기면서 1996년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다.

과거 청량공원 일대에는 의릉과 함께 홍릉이 있었다. 을미사변으로 시해당한 명성황후는 천장산 산줄기 아래인 홍릉 터에 22년간 안장됐다. 명성황후의 무덤은 풍수지리상 불길하다는 이유로 이장돼 남양주시 금곡동에 있는 고종의 능에 합장됐다.

이외에 함께 가볼만한 시설로는 회전 놀이대·시소·그네 등의 놀이시설물을 갖춘 '돌피어린이공원'과 일반서 16만1062권, 다문화 도서 1만2793권, 큰활자책 697권, 점자도서 504권, 오디오북 177권을 포함해 총 21만3864개 자료를 소장한 성북정보도서관이 있다.

성북구는 "문화재청과 협의해 문화재 구역 일부를 개방, 의릉~돌피어린이공원~성북정보도서관을 잇는 산책로를 조성했다"고 전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 버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뉴진스, 스포티파이서 K팝 최단 10억 스트리밍 돌파로 '기네스' 등재  
▲에스파 미니 3집, 첫날 137만장 판매로 K팝 걸그룹 최다 /사진 뉴시스

▲박칼린 표절 의혹 제기한 '와일드 와일드' 공연 금지 가처분 기각  
▲문체부, 온라인 음악서비스 저작권료 상생 합의안 시행



▲선수촌 음주운전 사고낸 김민석·정재웅 벌금형  
▲높이뛰기 우상혁, 전국 육상 대회서 2m32로 우승 /사진 뉴시스